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는 본문 중심 강해설교”

목데연 설문조사서 담임목사 60%가 선택...
복음 설교 확대 필요성도 제기

한국교회 담임목사들은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으로 '본문 중심 강해설교'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는 위로와 치유, 격려 중심 설교였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2일 발표한 '한국교회 설교 실태 조사' 결과로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으로는 '본문 중심 강해설교'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러티브식 설교'는 25%, '주제 중심 설교'는 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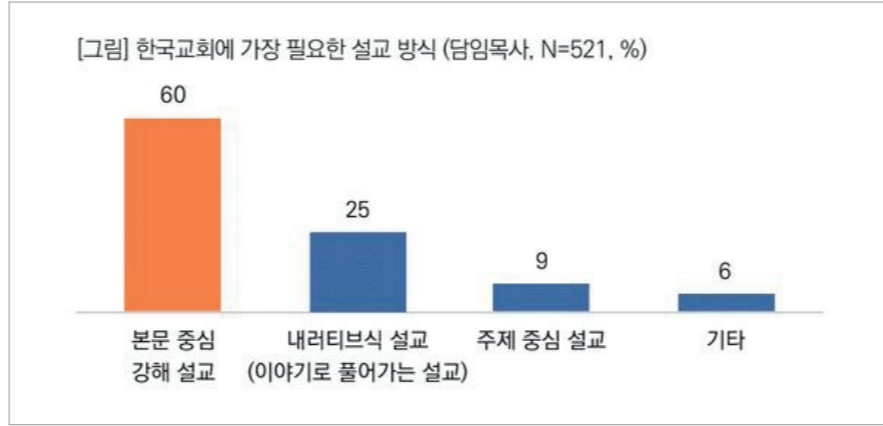
목데연은 이를 두고 "청중의 흥미를 유

발하는 방법론적 접근보다 성경 본문 자체의 메시지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현 강단의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목회자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설교 방식에서도 본문 중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일 본문 집중 설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9%로 '복수 본문 연계 설교'(21%)를 크게 앞섰다. 또한 '원포인트 설교'(58%)가 '다대지 설교'보다 선호됐으며, '귀납적 설교'(70%)가 '연역적 설교'(30%)보다 높은 선택을 받았다.

설교 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한국교회 강단의 모습과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 주제로는 '위로치유격려 설교'가 47%로 가장 높았고, '현실 문제 해결 설교'가 16%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정서적 위로와 삶의 문제 해결에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점이 맞춰진 설교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나야 할 설교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 61%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설교'를 선택했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위로 설교와 현실 문제 해결 설교는 각각 4%에 머물렀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연구 자료 활용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설교 준비 시 활용하는 자료로는 '한글 번역 성경'(89%), '주석책'(77%), '사전'(73%)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인공지능(AI) 활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담임목사의 55%가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40대 이하(59%)와 50대(60%)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AI를 사용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9%로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AI 활용 목회자들은 주로 '설교문 점검보완'(43%), '본문 배경 연구'(35%), '단어·어원 연구'(28%), '설교 아웃라인 제

작성'(23%) 등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교 예화 사용에 대해서는 대다수 목회자가 절제된 활용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88%는 "설교 예화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예화는 많을수록 좋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예화의 주요 소재는 '개인적 삶의 경험'(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독서'(35%), '사람들의 일상 관찰 및 이야기'(28%), '시사 뉴스'(21%) 순이었다.

설교에 대한 목회자들의 자가평가에서는 긍정적 요소와 함께 부담감도 확인됐다. 설교 방향에 대해 성도와 리더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75%였으며, '목회 초기보다 설교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65%,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실제 신앙 성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4%였다.

반면 '설교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은 40%, '설교 사역 과정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나 목회자 3명 중 1명 이상이 설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번아웃 경험은 40대 이하 목회자와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설교 방향에 대한 신뢰는 출석교인 100명 이상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일 대예배의 적정 설교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조사됐다. '26-30분'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25분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5%가 30분 이내 설교를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국의 은퇴 설교자로는 '목회자'가 2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동원 목사'(11%), '목회자'가 11%, '박영선 목사'(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듣고 싶은 설교자가 없다'는 응답도 27%로 목회자와 같은 비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목데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성경 본문 자체의 권위와 복음을 회복하는 건 강한 설교 사역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은혜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나눔과 연보'의 의미는?

바울 신학 권위자 존 바클레이 英 더럼대 교수, 송실대서 강연

송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은 최근 세계적 바울 신학 권위자인 존 바클레이(John M. G. Barclay) 영국 더럼(Durham)대 교수를 초청해 '은혜와 기독교 윤리: 바울 신학의 실천적 함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존 바클레이 교수는 개신교인들이 이웃을 향한 나눔과 연보(헌금)에 대해 의무감에 그치지나 오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종교개혁 이후 고착화된 신학적 성향을 지적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개신교 전통이 '행위

구원론에 대한 강박적 공포를 지녔다"며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근원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가 역설적으로 구원 이후의 삶에서 '행위와 선행(헌금)의 가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들 강물이 흘러오는 곳을 바라보는 '상류(Upstream)의 신학'이라 지칭하고 싶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근원(상류)만 중요할 뿐,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나눔과 선행(하류)은 어떻게 흐르든 무관하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퍼졌다"고 했다.

아울러 "헌금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적 무관심에 빠지거나, 나눔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빛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고린도후서 8-9장을 근거로 "바울은 결코 '상류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바울이 가르친



존 바클레이 교수. ©노형구 기자

참된 연보의 의미는 은혜가 도달할 목적지와 그로 인해 변화될 인간의 미래를 향하는 '하류(Downstream)의 신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이러한 논리를 헌금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인간의 열심은 의미가 없다거나,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내는 것이니 내 공로'라는 식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빠지게 된다"며 "토마스 아퀴나스와 현대 신학자 케서린 테너의 개념을 빌려, 연보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비경쟁적 초월성(Non-competitive Transcendence)'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연보는 100% 하나님의 은혜(Charis)에 의한 결과인 동시에,

100% 인간의 진심 어린 헌신과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해석"이라고 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분과 경쟁하지는 분이 아니"라며 "오호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부족에 대한 공포에 묶여 있던 인간의 의지를 '해방시켜 자발적으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주체로 만들어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울에게 헌금이란 의무나 명령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행위가 아닌, 신성한 은혜의 역동성에 능동적으로 뛰어드는 '참여의 윤리가 된다'며 "기존의 자선(Charity) 모델은 물질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구조다. 이 구조 안에서 주는 자의 자원은 고갈되고, 받는 자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고 했다.

그러나 바클레이 교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연보의 풍성함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액수나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플로테스(Haplotēs)'였다"며 "이는 선물이 가진 '순전함'과 '단일한 마음(Single-heartedness)'을 뜻하며, 돈의 액수로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관대함"이



행사 관계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라고 했다. 아울러 "여기서 기독교 윤리만의 독특한 역설이 발생한다. 신자가 자신의 유한한 자원에서 쪼개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공금원(Surplus) 안에서 베푸는 것"이라며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영적 잉여를 나누는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신자는 부족(Scarcity)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기만 하는 차가운 금속 파이프가 아니다. 은혜의 강력한 수압(연보의 실천)이 파이프를 통과할 때 파이프 내부에 쌓여 있던 이기심의 녹과 찌꺼기가 씻겨 나가고 파이프 자체가 확장된다"며 "헌금을 드리는 자(Giver)는 자원의 고갈을 겪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내적인 성취와 깊어짐(Enrichment)을 경험하게 된다"

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바클레이 교수는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서가 아니라, 더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to become something more) 심는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바클레이 교수가 제시하는 바울의 윤리 구조는 거대한 '은혜의 순환(Circle of Charis)'으로 요약된다. 은혜는 하나님(상류)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자발적인 연보를 거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찬양과 감사(하류)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흐름 안에서 신자는 단순히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 물질을 소모하고 손해 보는 존재가 아니라 '연보라는 과정을 통해 신자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다가올 영원한 삶에 적합한 존재로 빛어지게 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보훈선교단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 개최 >> 7면

예람위십, 활동 재개 동시
에 '인기 MV TOP 100'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정부 “혐오표현·차별방지 법제화 토대 마련할 것”

출범 1년 맞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담겨

정부가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의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담겼다.

정부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2026년 2월)하면서 이주·장애·성소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등 각계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의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술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중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계에서는 두 법안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종교와 표현 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지난해 9월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참석자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기독일보 DB

“학술지 평가 통한 젠더이념 강제 중단하라”

자평법정책연구소·동반연·진평연 등 500여 단체, 한국연구재단 규탄 성명

자평법정책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연구재단 흥원

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은 학술지 평가를 통한 젠더이념 강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이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안정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에 대해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착안점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항목이 단순 권고 아니

라 사실상 강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항목 총점 0점을 부과하는 경우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탈락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을 상대로 젠더혁신정책을 사실상 강제하는 평가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 분석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적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형평성·다양성·포용성 등의 이념적 개념이 연구 기획,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논문 작성 및 학술지 평가 전반에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문은 권력기관이 정한 이념적 기준에 복종하는 활동이 아니다. 학문은 의심하고, 검증하고, 반박하고, 토론하는 자유 위에서만 발전한다”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배제되거나 심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학문 영역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연구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특정 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한국연구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주입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KCI 등재와 학술지인증이라는 막강한 제도적 권한을 이용하여 학회들이 평가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젠더혁신정책을 투고규정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학문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평가착안점 즉각 삭제 △흥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의 사퇴 △

생물학적 성별 분석과 사회적 젠더 이념을 구분하고 특정 젠더 관점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 △성평등과 국회의 조사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자평법정책연구소를 비롯해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500여 단체가 참여했다. 김진영 기자

“학문 영역에 ‘차별금지법’ 도입하려는 것인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연구재단 젠더혁신정책 평가기준 비판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2일 논평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학문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연구재단이 학회지 평가 영역에 젠더혁신정책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초·응용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창출과 기술 및 디자인 등 과학기술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언론회는 “지식, 기술, 디자인, 과학기술을 창출하는데 무슨 젠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며 “과학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왜 ‘젠더’가 필요한 것인가? 이는 학문과 학술지 영역에

다 강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성정치’와 ‘성혁명’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연구 결과가 특정 성이나 젠더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이렇게 되면, 연구와 양심에 따른 연구가 아니라, 젠더 학문을 조장하고 그에 반하여 정상적인 개념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제도의 강제성을 문제 삼았다. 언론회는 “연구 관리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목에 0점을 주는 경우에도 평가 탈락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 정책을 따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한방상 보장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며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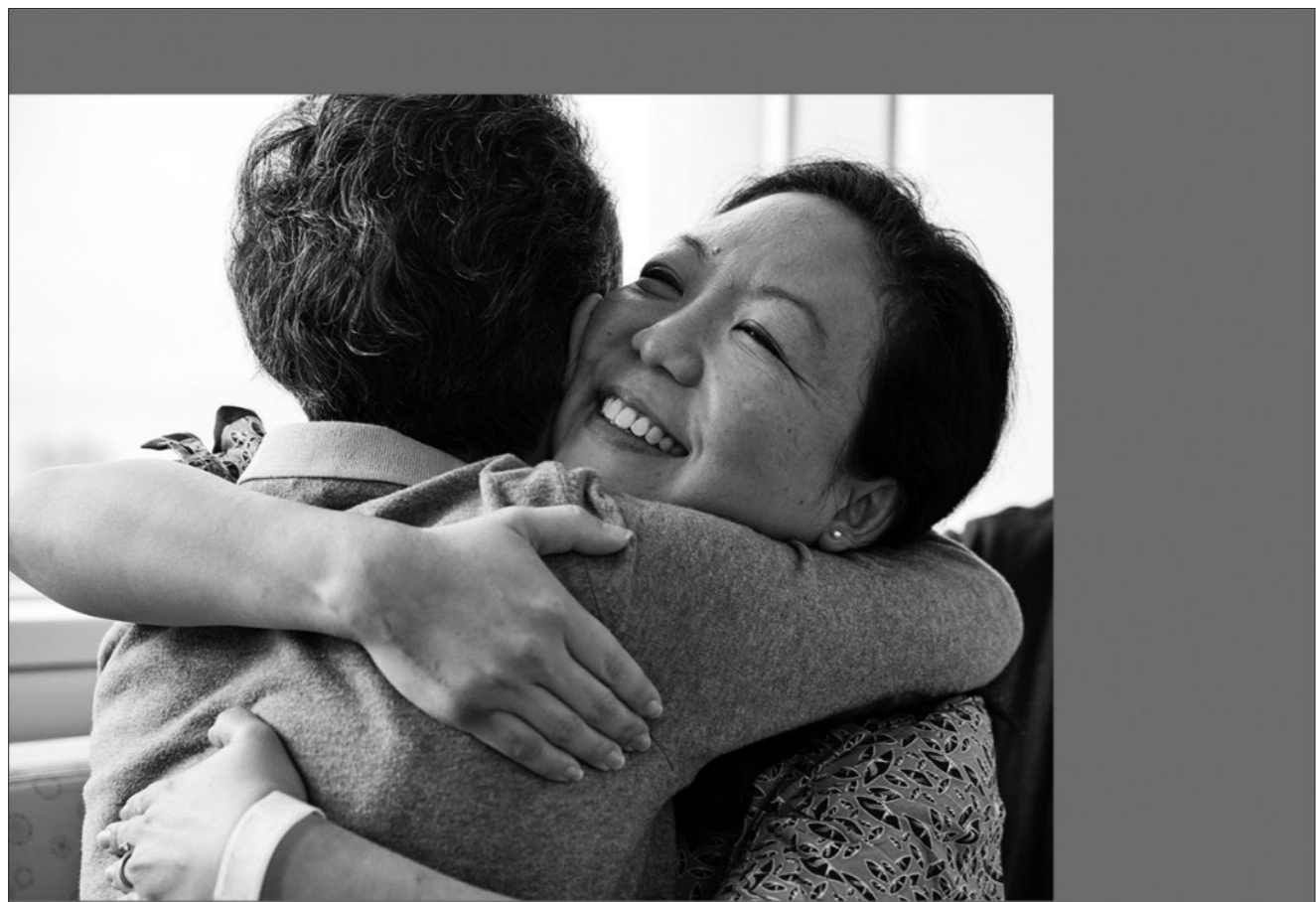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목적이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국가 연구역량 제고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젠더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라는 것이 국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 되는가?”라며 “연구와 학술 목적의 재단이 젠더를 조장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지원 기관이 본인의 역할인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한국연구재단은 즉시 이념 연구와 학술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법’ 차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젠더혁신정책을 따르도록 사립대학, 순수하게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만 기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엔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 & Johnson

전남교총 “성평등 조례안은 반헌법적 폭거... 신앙 자유 지킬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둘러싸고 지역 교계의 조직적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홍 목사, 이하 연합회)는 최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교회총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 법이 규정하는 평등은 철저히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 즉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는데,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혼란을 막고 상위



최근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 ©기독일보DB

가 목숨처럼 지켜온 신앙의 근본 고백”이라며 “전남 교계는 동성애를 비롯해 성평등성을 다양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법제화되면,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정당한 설교권과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원칙을 조례안에 즉각 반영하고, 교회를 옥죄려는 모든 입법 시도를 단호히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조례안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전도민적 반대 서명운동과 대규모 항의 집회 등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형구 기자

교세 감소·신학대학원 ‘입학 절벽’ 평행이론... “목회자 수급 생태계 붕괴”

한국교회 규모를 따지는 양대 축인 교인 수 급감과 목회자 후보생(M.Div.) 유입 저하가 정비례하며 동반 추락 중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은 교계 전반의 위기를 가속화한 변곡점으로, 각 신학대학원은 당시의 충격 이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입시 절벽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장로신학대학교(총장 박경수, 이하 장신대), 총신대학교(총장 유경동, 총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이하 서울신대) 등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의 입학 경쟁률과 정원은 하향 평준화를 넘어 ‘충원율 비상’을 겪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의 장신대 신대원은 2015년경 4.5 대 1(정원 약 280명)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2.5 대 1(정원 약 260명)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후 지속적 정원 조정 끝에 최근인 2026학년도에는 1.5 대 1(정원 220명) 내외를 기록, 신입생 선발 변별력을 위협받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역시 2015년 3.5 대 1(정원 약 350명)의 경쟁률을 유지했으나, 2020년 팬데믹 직후 1.8 대 1(정원 약 320명)로 반토막이 났다. 2023년에는 개교 이래 첫 정원 미달 사태를 경험하며 충격을 안겼고, 현재는 1.2 대 1(정원 280명) 수준으로 간신히 충원율을 확보하는 형국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김성서 목사)의 감신대 신대원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정원 미달을 경험했다.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에는 1.0 대 1(정원 약

220명) 수준으로 고착화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과정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180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1.0 대 1(정원 180명)의 경쟁률을 유지하며 자구책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안성우 목사)의 서울신대 신대원 또한 코로나 기간 1.2 대 1(정원 170명)까지 경쟁률이 하락했다. 2023년 0.9 대 1로 정원 미달을 기록한 이후, 현재는 정원을 150명으로 축소하여 1.0 대 1(정원 150명) 내외의 불안정한 입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수치들이 팬데믹이라는 외부 충격과 한국교회의 구조적 붕괴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한다. 교계 관계자 A 목사는 “대내 예비가 중단된 기간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이것

이 신학 지망생의 원천적 고갈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 교단의 리더십들은 입시 위기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각 교단과 신학교들은 신학교 통폐합, 정원 감축, 2~3년제 분리, 평신도를 상대로 토요 집중과정이나 야간 과정 도입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수치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영적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계 관계자 B 목사는 “지난 10년, 특히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데이터는 한국교회 미래의 인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단의 행정적 수치 조정만으로는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며 “지급의 입시 위기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을 믿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감신대, 총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기독교일보DB

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등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팀 켈러 3주기 기념 세미나... 문화변증·그리스도 중심설교 조명

삼일교회서 ‘팀 켈러의 문화변증과 설교’ 주제 세미나 열려

팀 켈러 목사 3주기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최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팀 켈러의 문화변증과 설교’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북음과도시와 그루(Grew)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정영준 목사(근슬작은씨앗교회), 이정규 목사(시공교회), 고상섭 목사(그사랑교회)가 각각 강연자로 나서 팀 켈러의 문화변증과 설교 사역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살폈다.

◆탈기독교시대 진단과 문화변증의 필요성

정영준 목사는 ‘탈기독교시대의 문화변증-The Gospel After Christendom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며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탈기독교적 현실과 문화변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목사는 현재를 기독교가 사회적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한 탈기독교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적 가치체계가 더 이상 공적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보다 실용성과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탈기독교시대 진단과 문화변증의 필요성

정영준 목사는 ‘탈기독교시대의 문화변증-The Gospel After Christendom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며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탈기독교적 현실과 문화변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목사는 “문화변증이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 변증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며 “모든 변증은 결국 특정 문화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문화변증의 목표 역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신의 문제는 단순한 지적 결핍보다 사랑과 욕망의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또한 변증은 지식과 삶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야 하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전도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변증이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신자들 역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문화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문화변증이 실천되는 공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회를 복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렌즈라고 표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실재가 드러나야 한다”며, 교회와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완충지대로서의 공동체 공간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텍스트를 복음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일교회에서 열린 팀 켈러 3주기 기념 세미나 ‘팀 켈러의 문화변증과 설교’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이정규 목사가 1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열린 ‘팀 켈러의 문화변증과 설교’ 세미나에서 마가복음 12장 18-27절을 본문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팀 켈러 방식 설교의 예’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복음을 살아있는 담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문화변증의 역할

특히 “오늘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전선처럼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도 개인적 필요와 실존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복음은 살아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어렵다”며 “반면 문화변증은 복음은 사람들의 실제 삶과 연결시키며 현실적인 선택과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 있는 담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문화변증이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 변증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며 “모든 변증은 결국 특정 문화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문화변증의 목표 역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활 신앙과 영원한 삶, 팀 켈러 방식 설교의 실제

이러한 강연에서 이정규 목사는 마가복음 12장 18-27절을 본문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팀 켈러 방식 설교의 예’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르치셨다”며 “사두개인들이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과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부활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음 설교와 문화 내러티브 분석

고상섭 목사는 ‘팀 켈러 설교를 통해 본 문화변증’을 주제로 강연하며 포스트모던 시대 속 복음 설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 목사는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견해를 인용하며 “서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 가운데 하나는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인간 중심적 프로젝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 내러티브를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지만 사회 안에서 자명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전제라고 정의했다.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문조차 품지 않는 사고방식이 문화 내러티브라는 설명이다.

이어 팀 켈러가 정의한 이상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음만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게 한다

또한 팀 켈러의 설교 방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그는 “첫째는 문화에 대한 설교로, 인간 마음속 우상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마음을 향한 설교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삼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으로, 칭의와 성화를 연결하는 설교”라고 설명했다.

고 목사는 “문화를 향한 설교와 마음을 향한 설교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문화 내러티브가 사람들의 정체성과 양심, 현실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설교에서 문화 참여의 목적은

단순히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중의 삶의 근본을 드러내고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음만이 세상을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갈망과 낙심을 언급하며, 팀 켈러가 말한 부

활 신앙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삶의 상처와 문제를 다루는 살아 있는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세 명의 강연자가 함께 참여한 패널토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활 신앙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삶의 상처와 문제를 다루는 살아 있는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세 명의 강연자가 함께 참여한 패널토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ASHANIA

K-뷰티 혁신을 바탕으로 피부를 밝히고, 탄력을 더하며,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줍니다.

Powered by
K-Beauty Innovation to Brighten,
Firm, and Restore
Your Natural Glow.

ASHANIA
홈페이지

ASHANIA
브랜드스토어

영암신학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 한국성결교회 신학적 정체성 모색

피비 팔머의 제단신학과 사중복음 신학 조명

영암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정수)가 지난 1일 성결대학교 아람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비전'을 주제로 6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재조명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결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성결교회의 핵심 신학인 사중복음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박정수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한국성결교회가 걸어온 신학적 전통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성결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강조하며 한국교회 안에서 독자적인 신앙 전통을 형성해 왔다"며 "오늘 날에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그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교회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비전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한국성결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한 신학적 과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결의 복음이 목회 현장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다음 세대에 생명을 있게 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는 '성결운동의 어머니 피비 팔머(Phoebe Palmer)의 제단신학'을 주제로 서민수 목사(Ph.D. cand.)가 맡았다.

서 목사는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의 핵

심 지도자이자 여성 설교자였던 피비 팔머가 존 웨슬리의 성화론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성결신학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머가 성경을 단순한 점진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즉각적 은혜로 이해했다"고 했다.

또한 "팔머는 성경을 성령세례와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성결운동의 체험성과 역동성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이후 미국 성결운동의 확산과 신학적 방향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팔머의 제단신학이 단순한 개인 경건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다"며 "화요 성결집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팔머의 신학이 전국성결캠프집회와 전국성결총회 운동의 중요한 모델이 됐으며, 성결과 성령세례, 능력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후대 오순절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단신학은 웨슬리 신학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웨슬리 전통 안에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롭게 전개된 독자적 성결신학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웨슬리가 점진적 성화와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강조했다면, 팔머는 성경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재적 은혜로 재구성했으며 성결의 확산과 공개적 간증, 성령세례의 현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신학적 흐름이 동양선교회를 거쳐 한국 성결교회의 성결론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오늘 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성결 이해 속에서도 성결을 현재적 은혜와 성령의 역사,

온전한 헌신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팔머의 제단신학이 삶과 공동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윤리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결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봉사, 선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현재적 능력으로 이해됐으며, 성령세례와 능력 부여를 중심으로 존재의 변화가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윤리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팔머의 제단신학이 지나친 즉각성과 체험 중심성, 성령세례 강조로 인해 성화의 점진적 과정이나 지속적인



영암신학사상연구소가 지난 1일 성결대학교 아람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비전'을 주제로 2026년 6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



박정수 영암신학사상연구소 소장이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비전' 학술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



서민수 목사가 '성결운동의 어머니 피비 팔머(Phoebe Palmer)의 제단신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



김명택 영암신학사상연구소 부소장이 '범복음주의 교회의 신학 패러다임: 사중복음과 예성신학'을 발표하고 있다. ©영암신학사상연구소

성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날 성결신학이 교리적 형식주의나 과거 전통의 반복에 머무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팔머의 제단신학은 성결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고 고백되며 실천돼야 하는 현재적 은혜임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며 "성결이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나 일회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성결한 삶과 윤리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중복음과 예성신학, 범복음주의 교회를 해석하는 신학적 패러다임 제시

이어 김명택 교수(영암신학사상연구소 부소장)는 '범복음주의 교회의 신학 패러다임: 사중복음과 예성신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가 급진정통주의가 제시한 '신학적 세계 해석의 관점을 수용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신학이 단순한 교단 신학을 넘어 범복음주의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설명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진정통주의가 근대 이후 세속화된 학문 체계를 비판하며 기독교 신학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궁극적 메타 서사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며 "사중복음 역시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인간과 교회, 세계와 역사를 해석하는 복음의 구조적 서사"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중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네 가지 차원을 통해 복음의 총체성을 설명한다"며 "중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성결은 인간 존재 전체가 변화되는 거룩의 과정이며, 신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현재 속에서 경험되는 표지,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과 종말론적 희망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심 중심 신앙, 십자가 중심의 구원 이해, 성경의 권위,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 선교 열정, 재림 신앙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사중복음 안에서 가장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역사적 경험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며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전통 위에 서 있음에도 실제 목회와 영성의 현장에서는 부흥운동과

회심 중심 신앙, 성령충만, 신유, 재림 신앙 등을 적극 수용해 왔다. 이를 한국교회의 혼합주의가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적 구조와 연결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단순한 교단 내부의 신학 유산이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사중복음 신학이 인간 존재의 영적·도덕적·육체적·주체적 차원을 포괄하는 총체적 구원을 설명하며, 한국성결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복음주의적 회심과 성결, 성령충만, 신유, 재림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경건과 영성, 실천적 거룩을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성신학은 단순한 교단적 지역 신학이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사중복음은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의 회복하고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중요한 신학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신학은 특정 교단의 전통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 사회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시대를 변혁하는 해석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순서로 마무리됐다.

한편, 영암신학사상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성결대학교 설립자인 영암 김응조 박사의 신학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계승하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확립과 한국교회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분당 만나교회, '만나IC 2026 컨퍼런스' 개최

6월 23~25일 목회철학·다음세대·예배 주제로 진행…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 참여 가능

분당 만나교회가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에서 만나IC 2026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이 함께 참여해 교회의 본질과 사역 방향을 점검하고 한국교회



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만나IC'는 목회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방향을 점검하는 '인터체인지(Interchange)'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 컨퍼런스(Identity Conference)'의 뜻을 담고 있다.

컨퍼런스는 김병삼 목사의 키노트 세션과 37개 섹터 세션, 저녁 기도회 등으로

구성된다. 목회철학, 다음세대 사역, 예배, 공동체, 행정·재무, 미디어 사역 등 실제 교회 현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목회철학·다음세대·예배 중심 진행
첫째 날은 '다시, 목회철학'을 주제로 김병삼 목사가 교회의 본질과 목회철학을 나누며,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은 '이제, 다음세대를 주제로 다음세대 사역과 생애주기별 목회 전략'을 다룬다.

셋째 날은 '결국, 예배'를 주제로 예배의 본질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를 조명한다.

주최 측은 목회철학에서 다음세대, 예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섹터 세션과 특별 프로그램
선택 세션에서는 '다시 교회로 오는 3040', '소모임, 요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노는 이유' 등 공동체 회복과 소그룹

사역을 다룬다. 또한 행정·재무, 설교와 예배, 미디어 분야의 실무 세션도 마련된다. "따로 또 같이, 네트워크 교회" 세션에는 이찬남·양주·장원·영중·용인·만나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해 네트워크 교회 사역 사례와 비전을 소개한다.

신학생을 위한 '김병삼 목사님, 커피챗 가능하신가요?' 세션과 사모들을 위한 '사모님 상담소'도 진행된다. 저녁 기도회에서는 교회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최 측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사역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 신청만 가능
참가비는 1일권 1만 원, 2일권 2만 원, 전 일정권 3만 원이다. 등록은 온라인 사전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온라인 중계는 제공되지 않는다. 숙박은 별도 지원되지 않지만 제휴 호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만나교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이 함께 한국교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SWP 한국동서발전주

한교총,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개최... 예상합동·기성 우승

12개 교단 목회자들 친선 경쟁과 교제 나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주최하고 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정동균 목사가 주관)한 '2026 한교총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가 최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됐다.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가 협력한 이번 대회는 한교총 회원 교단 간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올해부터는 정례대회로 전환돼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예상합동, 예상통합, 예상백석, 기하성, 기침, 기성, 예상고신, 예상, 예상합신, 예상대신, 예상호현, 나성 등 12개 교단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조 추첨 결과에 따라 삼할렐루야(A기상·예상합신·예상대신·나성) 삼할렐루야(B기상·예상합동·예상통합·예상백석

기하성) 삼인마누엘(기상·예상고신·예상·예상호현) 팀으로 나누어 예선 풀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치렀다. 모든 경기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전후반 각 15분 경기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할렐루야 팀에서는 예상합동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인마누엘 팀에서는 기성이 정상에 올랐다. 참가한 목회자들은 승패를 떠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교단 간 우의를 다졌다.

경기에 앞서 드러진 개회예배에서는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예상대신 총회장)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정인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핏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교단마다 우승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한국교회 연합의 장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꽃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할렐루야 팀에서 우승한 예상합동 축구팀 ©한교총

대회장 김정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어울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한국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초기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더 큰 열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정동균 목사(한교총 교류협력위원장)는 인사말에서 "이 대회는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교제와 아름다운 동역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서



인마누엘 팀에서 우승한 기성 축구팀 ©한교총

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참된 연합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상호현 소속 여성 목회자가 선수로 출전해 남성 목회자들과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경기 후에도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이어가며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나눴다. 한교총은 축구대회가 교단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 본격화

실행준비위 가동· 전국 회개기도운동 전개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이하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최근 서울 성북교회 아가페홀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 제10차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장사무엘 목사(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장의 진행)로 열렸으며, 전국 지역본부 대표들과 준비위원,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정책회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신석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전임 부총재)의 사회로 시작해 박재신 목사의 기도, 이기도 목사의 설교, 염신형 목사와 진동용 목사의 격려사,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날 미국에서 사역 중인 허봉량 선교



이기도 목사

이태희 목사

사는 특송과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강조했다. 허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민족복음화의 출발점"이라며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에 다시 서야 한다"고 했다.

설교를 전한 이기도 목사는 스가라 4장 5-10절을 본문으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조직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뤄질 것"이라며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열린 정책회의에서는 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행준비위원회 산하

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기획정책, 재정, 홍보미디어, 교단협력, 기도운동, 행사운영, 청년다음세대, 대외협력 등 전문 소위원회를 조직해 실질적인 실행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성회의 최종 개최 날짜와 장소 선정 권한을 실행준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실행준비위원회는 전국 교계의 의견과 행사 규모, 접근성,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전국 지역별 목회자 회개기도대성회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현재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충남, 부천, 파주, 전주, 구미, 원주, 포항, 마산·창원진해, 여성본부 등 주요 권역별 조직이 구성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오산리기도원 성회'가 열릴 예정으로, 전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도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및 운영 시스템 구축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투명성과 체계적 운영이 대성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하고, 후원체계 구축과 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운영 매뉴얼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이태희 총재는 2027년 8천만 민족

복음화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인적으로 1억 원을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총재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가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 연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한국교회 주요 교

단들과의 협력 확대 및 업무협약(MOU)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준비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요 교단을 비롯해 감리교, 성공교, 순복음 계열 등 한국교회 전반의 참여를 확대해 특정 교단 중심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연합성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스가라 4장 6절 말씀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

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를 함께 붙들고,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가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기도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앞으로 전국 지역별 목회자 회개기도대성회 개최와 교단 협력 확대, 기도운동 확산 등을 통해 2027년 대성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 제10차 정책회의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2026 저출산 대책 컨퍼런스 열려... 한국교회 역할 조명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와 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CTS대전방송이 주관한 '2026 저출산 대책 컨퍼런스'가 최근 대전 디딤돌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출산과 양육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점검하고, 각 교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환영사를 전한 대전성서화운동본부 류명렬 대표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각 교회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민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직전 대표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교회가 결혼과 출산, 양육에 함께 참여하며 서로를 돕는 대안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성경적 가치관 위에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저출산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CTS기독교TV와 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가 공동 주최한 '2026 저출산 대책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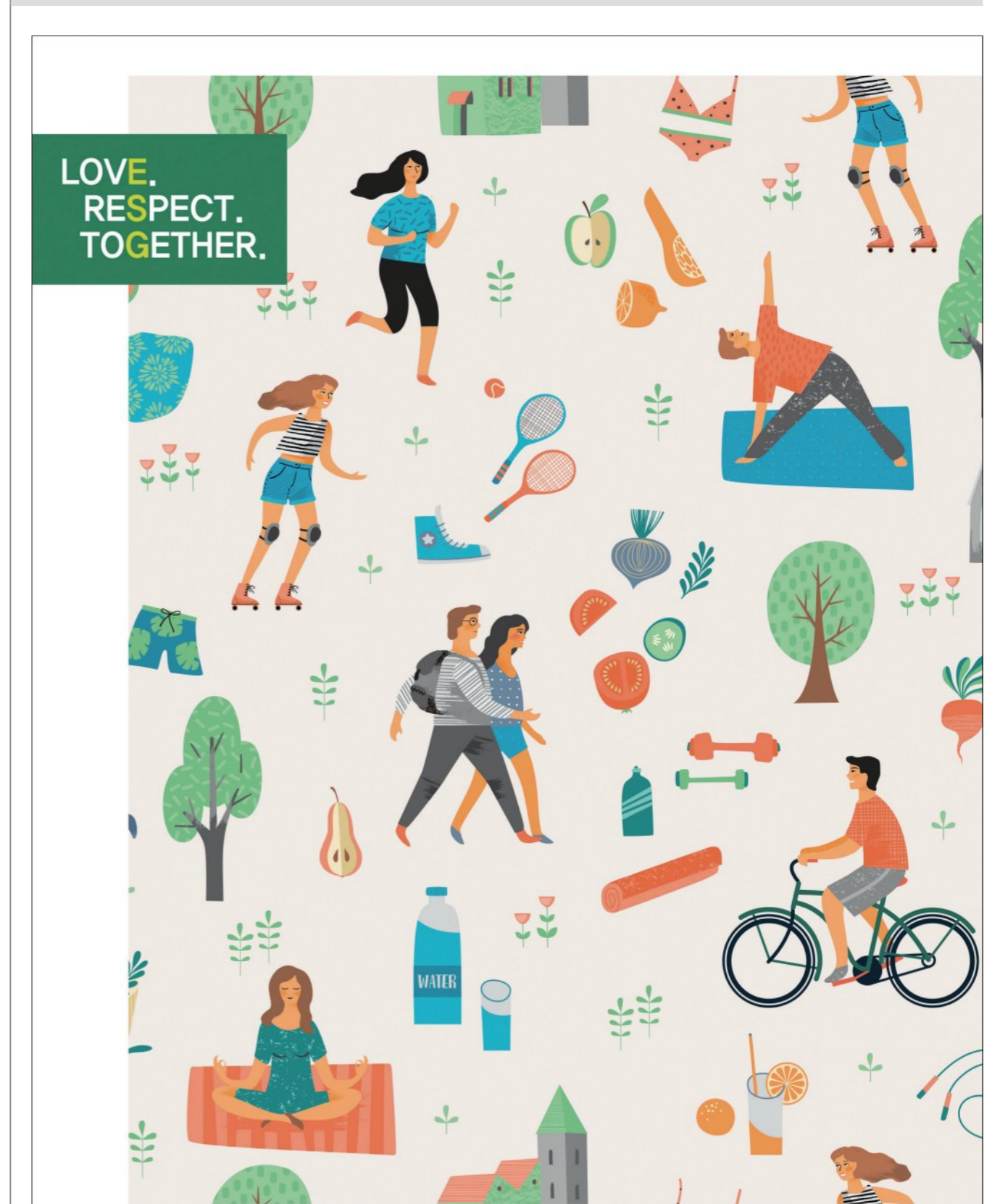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가 차원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분석과 함께 교회 교육부서의 성경적 가치관 교육 사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만남의 장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주최 측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실제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의에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

회), 이종지 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문성광 목사(총회교육개발원 연구원), 정명기 상임이사(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가 참여해 청년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과 출산·양육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역 교회들의 저출산 극복 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 장려와 다음 세대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김영빈 목사 “은혜의 다리로 세상과 다음 세대 연결하는 교회 될 것”

시애틀 브리지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식 거행

시애틀 브리지교회(Seattle Bridge Church)가 지난 5월 31일 창립 14주년 기념예배와 함께 제2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알렸다.

시애틀 브리지교회는 그동안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와 다세대 사역을 기반으로, 1세대와 2세대를 잇는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 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체성을 이어가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 양육에 더욱 힘을 다집했다.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김영빈(אלקס 김) 목사는 “The Bridge of Grace(골 1:18-23)라는 제목으로 취임 첫 설교를 전했다.

김영빈 목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자”며 “은혜의 다리로서 세상과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날 예배는 창립 목사인 스티브 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또 다른 창립 목사인 이원규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또한 남침례교단 퓨젯사운드 협회 삼임이사인 론 셰퍼드(Ron Shepard)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며 교회의 새로운 출발

을 축복했으며, 여러 목회자들과 장로들 이 새로 취임하는 김영빈 목사를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다.

시애틀 브리지교회는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 아래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시애틀 브리지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담임 목사 취임식 설교하는 김영빈 목사 ©Seattle Bridge Church



시애틀 브리지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김영빈 담임 목사 취임식 기념촬영 ©Seattle Bridge Church

웨슬리 회심 288주년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연합성회 열려



웨슬리 회심 288주년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연합성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웨슬리 회심 288주년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연합성회가 지난 5월 22일과 23일에 열렸다. 생수의 강 글로벌 감리교회(GMC, 김영웅 목사)와 새빛 사랑 글로벌 감리교회(GMC, 박유 목사)에서 열린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성회는 GMC 한미연회의 이상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또한, 시애틀 영화 글로벌 감리교회(GMC, 민관영 목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 교회의 진혼 성도는 그로서리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운 보험사를 알아보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비, 치료비, 재활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



이상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생활고까지 겹쳐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서부 지방회는 연합 부흥회를 준비하던 중 진혼 성도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부흥회 둘째 날 집회에서 드러난 특별헌금 \$3,500은 민관영 목사를 통해 진혼 성도에게 전

달되었다. 서부 지방회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진혼 성도의 회복과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했다.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는 2022년 연합감리교회(UMC)로부터 분리되어 창설됐다. 신학적 윤리적 기독교 전통성을 고수하는 것을 주요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김민선 기자

2026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 성황리에 마무리

‘2026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남가주 지역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지난 5월 30일 리버사이드 소재 오크 퀘리 골프클럽(Riverside Oak Quarry G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회장 권가숙)와 연세 글로벌 CEO AMP 동문회(회장 폴박)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남가주 전역에서 총 144명의 동문이 대거 참석해 역대급 규모를 기록하며 남가주 연세 동문 사회의 탄탄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회가 치러진 오크 퀘리 골프클럽의 수려한 경관과 완벽한 코스 관리 덕분에 참가자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으며, 라운딩을 통해 선운배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다채로운 이벤트와 기록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대회 당일에는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적인 ‘홀인 원’이 기록되어 행사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메달리스트와 챔피언을 비롯해 근접상, 장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동문들에게 상패와 부상이 수여됐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래플(추첨) 경품 행사 역시 풍성하게 마련되어 참석한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권가숙 남가주 동문회장과 폴박 연세 글로벌 CEO AMP 동문회장은 “바쁜 일중에도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문애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한 동문 사회의 단합된 힘과 에너지가 앞으로의 동문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와 연세 글로벌 CEO AMP 동문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 행사와 장학 사업 등을 통해 미주 한인 사회 내 연세인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 있다.

김민선 기자



2026 연세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월드미션대학교 제 35회 학위수여식 6월 6일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 총장 임성진) 제35회 학위수여식이 2026년 6월 6일 토요일 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거행된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 산하 소그룹 사역 센터는 오는 6월 11일(목)부터 8주간 “소그룹 사역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무료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경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간 Zoom 강의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그룹 리더를 대상으로 한다. 리더 자신의 정신건강을 먼저 돌아보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정서

적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 4주 동안에는 소그룹 리더의 정서적 영적 회복에 초점을 둔다. 후반부 4주 동안에는 소그룹원들을 돕기 위한 돌봄 역량 강화에 초점을 준다.

코칭, 슬픔과 상실 포용, 위기와 트라우마 이해, 회복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마지막 주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소그룹 안에서의 코칭이나 상담으로 회복가능한 것인지, 혹은 전문적인 신경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로 마무리된다.

이번 워크숍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자에게만 Zoom 참여 링크가 개별 안내된다. 등록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호국 영웅들 희생 위에 선 자유 대한민국, 지금은 나라 위해 기도할 때”

한국보훈선교단 ‘제4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 개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 이들을 예우하는 보훈단체 및 유관 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굳건한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6월 2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열린 (사)한국보훈선교단이 주관한 ‘2026년 호국보훈의 달 6.25 및 월남전 참전 상제4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6.25 참전 용사 최은석 장로(99),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참전 용사들과 예비역 기독교인들, 전국 11개 한국보훈선교단 지부 임원 및 회원, 전국 5개 보훈병원 원목과 임원 등 150여 명의 보훈가족이 참석해 선열들의 애국 신앙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이범희 목사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 월남전 참전 6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어린 자녀를 총구 앞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삼기하는 자리”라며 “6월만큼은 시련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누기, 어떻게 지켜왔는지 기억할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자긍심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심어질 때,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호국정신으로 단합되고 거듭나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땅에 다시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제1부 국민예배는 행사 준비위원장이자 한국보훈선교단 사무총장인 신태복 목사의 인도로, 윤옥철 장로의 백파이프 연주와 함께 한국보훈선교단기 입장,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부 예배는 이사장 이범희 목사의 인도로 조용한 기도를 드린 뒤, 전 한국예비역군복회 이사장 이윤희 목사(예비역 육군대령)가 기도했다. 이윤희 목사는 “붉은 깃발과 회색 깃발, 무지개 깃발이 이 강토를 연습하여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시장 경제 체제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전반을 위협하는 이 적체절명의 때에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보훈선교단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리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달라”고 간구했다. 갈렙찬양단(지휘 박찬석 장로, 반주 홍

해란 집사)의 찬양에 이어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갈렙회 지도목사인 손창문 목사가 ‘미스바 기도의 역사(삼상 7: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 목사는 “참전 용사들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키고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가 빛진 마음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창문 목사는 또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셨다”며 “과거 6.25 때도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7일간 절규하며 금식기도를 하여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역사를 이뤘다”면서 나라를 위해 확신하고 분명한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무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에 전쟁까지 덮쳐 져터미가 되었다가, 지금은 열방 가운데 우뚝 섰다”며 “우리가 잘 먹고 잘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손 목사는 “국론이 분열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미스바의 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통일과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자”며 “특히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회장 최병은 목사(예비역 육군중장)가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 지도자를 위하여,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사무총장 정성길 장로(예비역 육군대령)가 ‘국립 화합, 사회 통합, 경제 안정을 위하여, 갈렙회 회장 전성동 목사(예비역 육군대령)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 단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기도했다. 예배는 손창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호국 영웅 덕에 평화 누리” 이정민 전 차관 “역사 잊은 국가는 사라져”

제3부 축하순서는 서울지방보훈청 이승우 청장의 격려사, 전 국방차관 이정민 장로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승우 청장은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인 해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국의 부



①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 보훈 기관 관계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군기를 제창하고 있다. ②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③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이범희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다. ④손창문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⑤서울지방보훈청 이승우 청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⑥전 국방차관 이정민 장로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⑦이희희 기자

6.25 전쟁·월남전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들 헌신 되새겨야 국론 분열·안보 위기 속 ‘미스바의 기도’ 드리고 역사 가르쳐야

를 매 망설임 없이 나서주신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고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도회가 국가유공자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장로는 2000년대 초 한국 내 반미 데모가 거세지고 미국 내 반한감정도 고조되던 당시, 백선엽 장군 등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방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장로는 “그때 오히려 그분들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잘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후손과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며 “군인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부가 잘못 단진 수류탄 위로 땀을 댈지 죽은 강재구 소령의 정신을 되새기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축하 서신

을 이범희 이사장이 대독했으며, 한국보훈선교단 회계 신금순 목사의 색소폰 특주와 군가 ‘전우여 잘 자라’ 제창이 있었다. 사무총장 신태복 목사는 광고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힘을 합쳐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한국보훈선교단 수도권 총회장이자 인천지부장 김영호 목사의 인도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했다. 제4부 오찬 및 친교는 대구보훈병원 원목이자 대구지부장 이영근 목사의 오찬기도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보훈청,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산하 88컨트리클럽,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등이 후원하고, 월남참전용사기독신우회가 특별참여했다. 또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고별교회여호수아 화갈렙회 등과 대한민국미대연합, 경찰소방후원연합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보훈 사역에 한국교회, 다음세대 참여 늘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행사를 마친 후 소회를 나누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예우와 함께 보훈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짜빈동 전투에 참여한 정종해 장로(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역임, 월남전 상이용사)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도 귀를 곤두세우고 정치적 여야를 떠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며 “오늘 나라사랑 기도회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보훈선교단 대전지부 이사 윤기환 목사(전 대전보훈병원 원목, 공상군경)는 “각 기관에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신경 써주는 것이 감사했다”며 “바쁜 시간을 내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앞으로 더욱 잘 대접해 드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부 상임고문 조무기 장로(월남전 상이용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힘을 보탠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앞도려 기도하는 것”이라며 “주신 사명과 은사로 마음껏 나누고 섬기며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으로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부산지부 회원 조병선 권사(월남전 상이용사)는 “지난 20-30년 동안 학교에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30-40대 국민 상당수가 근현대사를 몰라 알게 되지 못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길 바라고, 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장 정홍수 목사(부산보훈교회, 공상군경)는 “해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지 24년이 흘렀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 올 때마다 연세가 많은 분이 천국에 가시는 것이 아쉽고, 젊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한 “코로나 전까지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이 보훈병원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위문의 발길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지방 보훈병원일수록 더 줄어든 것 같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 관심을 갖고 보훈병원에 방문해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국보훈선교단은 서울 본단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부와 5개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 △월남전도 성회 △전적지 탐사 및 추모음악회 △보훈문화, 외교선교 △안보도서 및 전적지 안내서 보급 △중상이자 그룹전도 등의 사역 등을 하고 있다.

한국보훈선교단 이범희 이사장(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 등 정부의 복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년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낙담하는 국가유공자들도 있어 안타깝다”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사역이 너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강산 어디든지 존재하는,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피의 역사를 써 내려간 그루터기 같은 국가유공자들의 흔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희희 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 전화 | 02-6411-3649
메일 | art@miral.org |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 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이집트 정부, 교회 191곳 추가 합법화

2016년 이후 총 3,804개 예배시설 법적 지위 획득

이집트 정부가 다양한 기독교 교단에 속한 교회와 부속 건물 191곳을 추가로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교회 및 관련 예배시설은 총 3,804곳으로 늘어났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무스타파 마드불리(Mustafa Madbouli) 총리가 주재한 내각회의 이후 발표됐다. 이는 교회 합법화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위원회의 30번째 승인 결정이다.

이집트 의회는 2016년 8월 30일 교회 건축법(법률 제80호)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교회 신축과 보수 승인 권한을 지방주지사들에게 부여했다. 이전에는 국가보안기관이 관련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

교회가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건축된 많은 예배시설들이 여전히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CSW의 대표인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교회 합법화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마스 대표는 또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아흐마드파(Ahmadiyya), 바하이(Bahai), 시아파 이슬람(Shia Islam) 공동체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집트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이 강조해 온 종교 자유 및 시민 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

라고 밝혔다. 현재 교회 건축법 제80호는 기독교 교회에 적용되는 반면, 수니파 이슬람 사원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아마다야, 바하이, 시아파 공동체는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캐나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Canada)의 듀안 프리젠은 이번 승인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종교적 소수자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독교 가정의 딸들이 강제적인 무슬림 결혼 압력을 받는 사례와, 기독교 남성들이 신앙이 알려질 경우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문제를 우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프리젠은 또한 교회 등록이 확대될수록 정부의 기독교 활동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회 합법화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기독교인 권리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법적 시도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이집트 법원은 부활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해당 청원은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지원을 받아 제기됐다.

법원은 청원의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해당 사안이 사법부가 아닌 총리의 권한에 속한다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러 기독교 교단의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일요일이 일반 근무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임금 손실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수업 결석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Unsplash/ludovico di gior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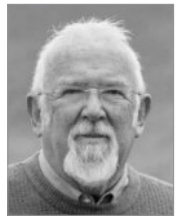
이집트 정부는 최근 부활절 관련 정책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민간 부문 기독교 근로자들에게 부활절 휴가를 허용했지만,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조치는 교단별 차이를 낳아 콥트 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

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와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휴가가 부여됐다.

이집트 최대 기독교 교단인 콥트 정교회는 1세기경 사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명경 기자

낙태 클리닉 인근서 설교했다 유죄 받은 북아일랜드 목회자, 항소



북아일랜드의 한 목회자가 낙태 클리닉 인근 완충구역(buffer zone)에서 성경을 설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은퇴한 목회자인 클리브 존스턴(Clive Johnston, 78·사진)은 이달 초 콜레레인에 위치한 코즈웨이 병원(Causeway Hospital) 변경 100미터 이내에서 낙태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4년 병원 인근에서 열린 야외 예배 중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존스턴 목사에게 병원 채플 등 안전한 공간에서 설교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북아일랜드의 낙태 서비스 안전접근구역법(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Act) 위반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으며, 벌금 450파운드(약 80만 원)를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설교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낙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스턴 목사는 항소 결정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이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낙태 반대 시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했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 "이번 유죄 판결이 유지된다면 단순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증언과 공개적인 신앙 표현이 범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낙태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존스턴 목사는 현재 기독교 법률·정책 단체 기독교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 지원으로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 단체의 부대표인 사이먼 칼버트(Simon Calvert)는 "이 사건은 괴롭힘이나 위협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클라리브 존스턴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낙태 완충구역 법률 아래에서 국가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평화로운 기독교 신앙 표현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만약

공공기관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 앞서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영국 당국이 대서양 동맹의 공동 가치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복음전도자인 프랭클린 그라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충격을 표명했다.

그는 "존스턴 목사는 낙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단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했 뿐"이라며 "항소를 맡은 법률팀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 "종교의 자유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보수당 출신 전 하원의원인 제이콥 리즈-모그(Jacob Rees-Mogg)도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 국가에서 경찰이 병원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명경 기자

스코틀랜드 낙태 건수 사상 최고치 가톨릭교회, 임신부 지원 확대 촉구

스코틀랜드에서 낙태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톨릭교회가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낙태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cotland)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총 1만 8,783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이는 2016년의 1만 2,135건과 비교해 5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율 역시 2016년 11.9건에서 2025년 17.6건으로 상승했다. 전체 건수와 인구 대비 비율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낙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5년 장애를 이유로 시행된 낙태는 277건으로 집계돼 2018년 대비 61% 증가했다. 또한 임신 18-20주 사이에 시행된 낙태도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코틀랜드의 법정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24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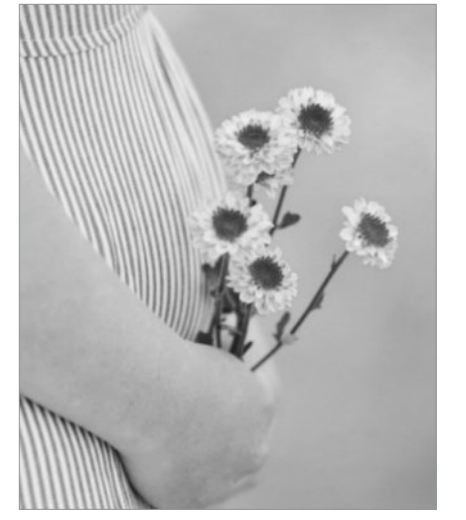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회의는 이번 통계가 어려운 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향한 보다 자비롭고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교회의의 의장인 존 킨난(John Keenan) 주교는 성경을 통해 "모든 수치 뒤에는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한 생명과 두려움, 고통, 어려움에 직면한 한 어머니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통계는 체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환영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위기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임신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 정서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킨난 주교는 스코틀랜드 정부를 향해 임신부와 태아 모두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스코틀랜드는 어머니와 아이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으로 여겨지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전 수상인 훔자 유사프(Humza Yousaf)의 의뢰로 진행된 낙태법 검토 보고서는 현행 24주 제한을 유지하되, 그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로



©Unsplash/ Ashton Mullins

도 낙태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24주 이후의 낙태도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그 조건에는 "환자의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호 단체인 '생명을 위한 권리(Right to Life UK)'는 해당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스코틀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 가운데 하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키르기스스탄 비밀경찰 고문, 피해 목사 강제 추방

파벨 슈라이더 목사 감형 직후 국외 추방 조치... 유엔 등 국제사회 종교 탄압 진상 규명 촉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키르기스스탄 비밀경찰이 수감 중 가혹한 고문을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자국 출신 목사를 국외로 강제 추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6월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수사 당국의 무지비한 인권 유린과 종교 탄압 행태가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포럼 18의 발표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국가보안위원회(NSC) 소속 요원들은 지난 4월 9일 66세의 파벨 슈라이더 목사를 국경 밖으로 전격 추방했다. 슈라이더 목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으나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벨라 역시 구금과 폭력의 공포 속에 남편과 함께 출국길에 올랐다. 당시 요원들은 목사를 차에 태워 국경으로 데려간 뒤 어떠한 추방 관련 공식 서류나 여권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재입국

을 전면 금지했다. 잡되고 자유로운 개혁 안식일교회 소속인 슈라이더 목사는 평생을 헌신한 고국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기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타국에서 망명처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불법적인 강제 추방 사태와 관련해 포럼 18 측은 키르기스스탄 국가보안위원회에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감형 직후 기습 추방과 수감 중 방치된 치명적 뇌 손상

CDI는 이번 추방 조치가 슈라이더 목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감형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직후 기습적으로 단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수도 비슈케크 대법원은 목사에게 내려진 남은 3년의 징역형을 평균 임금 3개월 치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했다. 교도소 당국

은 판결 당일 그를 석방했고 목사 측은 억울함 속에서도 벌금을 완납했다. 통상적으로 강제 추방 시 본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관례와 달리, 국가보안위원회 요원들은 사건 당일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황급히 그를 국경 밖으로 몰아냈다.

추방되기 전 슈라이더 목사는 국가 구금 시설에서 장기간 머물며 돌아갈 수 없는 건강 악화를 겪었다. 목사의 딸인 베라 슈라이더가 제21호 교도소 측에 긴급 의료 지원을 피눈물로 호소한 끝에, 지난 9월 교도소장인 아자트 쿠다이베르케노프 소령은 의료진의 진찰 결과를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 당시 교도소 측은 목사가 수감 중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참혹한 인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족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결국 교도소 당국은 10개월간 그를 구금했던 제21호 교도소에서 비슈케크의



파벨 슈라이더 목사의 모습. 그는 키르기스스탄 비밀경찰로 부터 수감 중 가혹한 고문을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강제로 추방당했다.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제31호 교도소 내 보안 의료 시설로 그를 뒤늦게 이감했다. 가족들은 9월 항소심 법정에서 아버지가 눈에 띄게 쇠약해진 것을 목격하고 즉각적인 병원 이송을 서면으로 강력히 요구했으나, 당국이 2주가 넘도록 생명이 위독한 목사를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 측은 뇌 손상의 일종인 뇌병증이 목사의 전반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며 당국의

녹장 대응을 비판했다.

◆조작된 혐의와 비밀경찰의 잔혹한 고문 논란 국제사회 분노 확산

키르기스스탄 종교 탄압의 희생양이 된 슈라이더 목사는 당초 '적대감 조장'이라는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교회 지지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혐의가 당국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고 지적한다. 사건은 국가보안위원회 비밀경찰이 비슈케크에 위치한 목사의 자택과 평범한 신도 10명의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무자비하게 시작됐다. 포럼 18은 경찰이 체포 직후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슈라이더 목사와 다른 신도 3명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키르기스스탄 경찰 당국은 고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슈라이더 목사가 국가 고문 방지 센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심문 당시 5명의 무장 요원이 목사의 머리와 가슴을 무차별 구타하고 뒤에서 적추를 가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요원들은

잊지도 않은 범죄의 자백을 강요하며 쇠파이프를 동원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밀경찰은 신도인 이고르 초이에게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하며 슈라이더 목사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초이는 심각한 다발성 상해를 입으며 쓰러지면서도 끝내 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다.

이 같은 끔찍한 국가 폭력 사태가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분노와 규탄에 나섰다.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나질라 가네야를 포함한 5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참되고 자유로운 개혁 안식일교회 신도들을 향한 표적 수사와 부당한 체포, 가혹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목사가 셀로판지로 목이 졸리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승연 기자

민주공고 에볼라 확산 속 소말리아·파키스탄 아동 영양위기도 심화

분쟁·피난·가뭄·홍수 여파 겹쳐... 보건·식량 위기 속 아동 피해 우려 커져

민주공고에서 에볼라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소말리아와 파키스탄에서도 심각한 식량위기와 아동 영양실조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분쟁과 피난 반복되는 자연재해, 국제 지원 감소가 겹치면서 취약 지역의 아동과 가족들이 보건 위기와 생계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에볼라 발병 이후 콩고민주공화국(DRC-민주공고)에서는 최소 500건의 에볼라 의심 사례와 1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열악한 보건 시스템과 장기화된 분쟁으로 의료 접근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이 이어지며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에볼라 발병은 감염 자체의 위험을 넘어 아동 보호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에볼라 유행 당시 아동들은 투병 중인 보호자나 가족을 돌보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됐고, 보호자 상실과 고립, 방임, 심리적 충격을 겪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민주공고 에볼라 확산도 이미 분쟁과 피난으로 취약해진 아동들에게 더 큰 위협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공고에서는 올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약 56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250만 명은 아동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인구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1,5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과 식량·보건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위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공고 에볼라 확산, 아동 위협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단부조 변종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해당 변종에 대한 백신과 치료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 예방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공고의 보건체계는 장기간 이어진 분쟁과 대규모 피난으로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의료 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감염 예방 물품과 현장 대응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감염 의심 사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격리치료를 연결하는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정보 전달도 중요한 과제다.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안전한 접촉 수칙,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와 진료 절차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정보가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보건시설 내부의 감

염 예방-통제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피난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식수와 위생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단위 피난이 이어질 경우,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은 단기간에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민주공고 에볼라 사태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위기와 맞물린 복합 재난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소말리아, 식량위기 인구 650만 명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에서는 식량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는 인구는 2025년 초 340만 명에서 2026년 650만 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소말리아는 2011년 대기근으로 25만 7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반복되는 가뭄과 분쟁, 생계 기반 붕괴를 겪어 왔다. 최근에는 국제 원조 감소까지 겹치면서 식량위기 대응 여력이 더 약해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식량 가격 상승과 가족 손실, 농업 생산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영양 상황도 심각한 수준으로 악

화되고 있다. 최근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분석에 따르면 소말리아 5세 미만 아동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8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49만 3천 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 상태로 파악됐다. 국제 지원 감소는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소말리아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률은 2024년 57.7%에서 2025년 28.8%로 떨어졌으며,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약 15%에 그쳤다.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다. 자금 부족으로 아동 영양실조 치료 시설 300곳 이상 문을 닫고, 예방 프로그램도 축소됐다.

◆파키스탄 홍수 후 영양위기 장기화 파키스탄에서도 대규모 홍수 이후 아동 영양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2025년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아동 283명을 포함해 1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생계 기반이 회복되지 못했다.

홍수 피해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주거지, 식수 시설이 훼손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식량 생산과 유통이 차질을 빚고, 보호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 확산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2026년 9월 전까지 파키스탄 내 3개 주 45개 농촌 지역에서 5세 미만 아동 27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약 70만 6천 명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됐다.

임산부와 수유부의 영양 상태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파키스탄 피해 지역에서는 약 23만 2천 명의 임산부와 수유부가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면 산모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와 영유아의 성장, 면역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염병·굶주림이 겹친 복합 위기

민주공고의 에볼라 확산과 소말리아·파키스탄의 식량위기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지만, 공통적으로 아동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감염병은 보건체계가 약한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식량위기는 영양 상태가 취약한 아동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민주공고에서는 에볼라 의심 사례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과 피난이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반복되는 가뭄과 분쟁, 지원



홍수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의 영양 지원을 받은 파키스탄의 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감소로 급성 영양실조 아동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홍수 이후 생계 회복이 지연되며 수백만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 위험에 놓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영양실조가 예방 가능한 문제임에도 식량 부족, 소득 상실, 질병 확산이 겹치면 아동 생명을 빠르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급성 영양실조는 적절한 치료와 영양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제사회 차원의 보건·영양·식량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 지역에는 예방 물품과 보건 인력, 감염 통제 체계가 필요하고, 식량위기 지역에는 치료 식과 영양 프로그램, 식수·위생 지원, 생계 회복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볼라와 식량위기, 영양실조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다 떠올랐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점심시간 서울 투표소 발길 이어져... 가족·청년 유권자 한 표 행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낮 서울 마포구 대흥실버복지센터 1층 강당에 마련된 대흥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김현아(20)씨가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시스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진행... "공약 봤다" "권리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 목소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서울 시내 주요 투표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투표를 마친 뒤 가족과 식사하러 이동하거나 약속 장소로 향했고, 일부 대학생들은 투표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와 도곡초등학교 투표소에는 가족 단위 유권자와 대학생, 고령층이 잇따라 찾았다. 아내와 함께 투표한 김모 씨(39)는 "후보가 너무 많아 결국 정당을 보고 투표하게 된

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온 이모 씨(52)는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정당 위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80대 여성 김모 씨는 "당선된 사람들이 화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모 씨(47)는 "권리 행사에는 참여해야 할 것 같아 투표했다"며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잘 살펴줬으면 한다"고 했다. ◆ 첫 투표 청년들 "공약 정책 꼼꼼히" 도곡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한 2007년생 유권자도 눈

에 띄었다. 김모 군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다"며 "투표 후 친구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대흥동 실버복지센터 투표소에도 가족과 대학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회사원 김태이 씨(30)는 "공약의 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대학생 엄모 씨(20)는 "시장은 공약을 보고 뽑았고 나머지는 정당을 고려했다"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육감 선거지역 현안에도 관심 대학생 김현아 씨(20)는 "시장과 교육감은 인물과 정당을 중심으로, 구청장과 구의원은 공약을 더 꼼꼼히 봤다"며 "타상공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신촌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 한모 씨(36)는 "지방선거는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교육감 선거를 가장 유심히 봤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 신장과 교육 환경 개선을 주요 기준으로 꼽았다. 운동 후 투표소를 찾은 신모 씨(58)는 "누가 되더라도 편 가르기보다 민생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정당, 공약, 후보 경력, 교육 정책 등 다양한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첫 투표에 나선 청년, 고령층까지 각자의 판단과 기대를 안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나래 기자

5월 소비자물가 3.1% 상승... 26개월 만에 3%대 진입

석유류·여행 서비스 가격 상승 주도... 정부 "전반적 인플레이션 확산은 아직 제한적"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여행 관련 서비스와 개인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3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었다. 정부는 이번 물가 상승이 석유류와 일부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아직 중동전쟁에 따른 전반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5월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개인서비스 부문이 주도했다.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전체 물가 상승분의 41.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1.1%포인트보다 확대된 수치로,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흐름에 미친 영향이 커졌음을 보여줬다. 재정경제부는 석유류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 상승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 인상 여파로 국제항공료는 33.5%, 해외 단체여행비는 26.3%, 승용차임차료는 25.7%, 호텔숙박료는 9.3% 각각 상승했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

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 석유류 가격 24.2% 상승...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상승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0.9%포인트로 전년 0.8%포인트보다 커졌다. 국제유가 상승이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항공료와 여행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린 영향은 크지만, 전쟁 여파가 모든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고, 가공식품은 0.8% 상승에 그치는 등 일부 먹거리 품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일정한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정부 추경에 따르면 이들 조치가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 수준까지 높아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책 효과로 5월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고가가격제나 유류세 인하는 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다른 품목으로의 파급도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5월에는 0.6%포인트가량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먹거리 물가 관리 강화... 가공식품 외식 전이 가능성 주시 정부는 현재의 물가 상승이 석유류와 여행 관련 서비스 등 특정 품목의 영향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최근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 인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어 향후 물가 흐름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품목별 가격 동향과 유통비용,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유류 가격이 서비스 가격을 통해 이미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가공식품과 외식 등 생활 밀접 품목으로의 전이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 하반기 물가 정점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주목 중동전쟁이 장기화돼 전반적 인플레

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산비와 물류비, 서비스 가격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적절한 시점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둔 상태다. 정부가 기대하는 명목성장률 10% 수준의 성장세가 현실화할 경우 물가에는 또 다른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석유류를 중심으로 한 공급 측 물가 상승에 더해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가 확대되면 물가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이어질 경우 하반기 물가 흐름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함께 주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해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 상승은 특정 품목의 영향이 큰 상황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젠슨 황, GTC 기조연설서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협력 부각

아이오닉 5-제네시스 G70 등장... 방향 앞두고 협력 확대 관측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 기술 행사 GTC 기조연설에서 현대차그룹 차량을 자율주행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그의 발언을 앞두고 양사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CEO는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GTC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퍼리온'을 소개하며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 G70을 주요 협력 차량으로 제시했다. 화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BYD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차량도 함께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현대차그룹을 자율주행 분야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황 CEO는 지난 3월 미국 GTC에서도 현대차그룹 차량을 활용해 자율주행 비전을 설명한 바 있다. ◆ 자율주행 플랫폼 협력 확대 주목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오닉 5는 모셔닐과 웨이모의 로보택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네시스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하이퍼리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

비디아 출신인 박민우 AVP본부장 겸 고티튜트 대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황 CEO가 방한 기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날 경우 자율주행 플랫폼과 AI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협력 가능성 양사의 협력은 자율주행을 넘어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로보틱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로보트자율주행용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에게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핵심 파트너"라며 "황 CEO 방한을 계기로 미래 기술 분야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CEO가 GTC에서 현대차그룹 차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AI를 중심으로 한 추가 협력 여부가 주목된다. 이나래 기자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상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자조회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사)한국딸은감협회

(사)한국양파연합회

(사)한국마늘연합회

(사)한국포도협회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사)한국천연농업협회

(사)한국백합 생산자중앙연합회

(사)한국키위연합회

(사)한국배연합회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조회

(사)한국사과연합회

(사)제주감귤연합회

(사)한국한외 재배자협회

(사)대한두채협회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길들여진 신을 넘어: 이사야가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아담 돌리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사라져가는 경외심의 이유(Are we inventing a fake God? Why reverence is dying)를 5월 29일(현지시각) 게재했다. 그는 테네시주 잭슨에 있는 잉글우드 침례교회의 목사이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2017년 세상을 떠난 R. C. 스프롤(R. C. Sproul) 신학자는 생전에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적 필요는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10년 전보다 어찌면 지금 이 시대에 더 깊은 찢림을 준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분을 재창조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기독교는 우리의 감각으로 다루기 쉬운 크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무대 뒤에 머무는 길들여진 신을 선호한다. 그가 우리를 우주의 중심이라 여겨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신은 우리의 지시에 따르기를 인당하며,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다.

그러나 이사야 6장은 이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길들여지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거룩함

으로 불타오르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환상(사 6:1-4)을 통해 성경은 우리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독보적인 정체성과 직면하게 한다. 이 선지자적 환상은 우리의 감상적인 선호를 산산조각낸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이 제아무리 잘못된 길로 향하더라도 그저 응원만 해주는 '몰 타스코트' 같은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

이사야가 본 영광스러운 환상의 배경은 유다 국가에 찾아온 불확실성의 시기였다. 50년 넘게 통치했던 우사야 왕이 죽고,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은 거대한 공백이 남겨진 때였다(대하 26:3).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그는 주님께서 당황하시거나 안절부절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았다(단 4:34-35). 역사는 그분을 뒤엎을 수 없었다(사 46:9-10).

보좌 주위로는 천군 천사인 스랍들이 날며 서로 칭찬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했다(사 6:3).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더 가볍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그분을 '저 위에 계신 분'이나 인생의 코치, 심지어는 비행기의 보조승사 정도로 가까이 격하하려 한다. 그러나 이사야의 묘사는 그러한 경박함이 들 어설 자리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요일 4:8), 스랍들은 "사

람, 사랑, 사랑"이라 외치지 않았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지만(미 7:18), "자비, 자비, 자비"라고 부르 짓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온전히 담아내는 단 하나의 속성을 선택했다. "거룩은 수많은 목록 중 하나의 특성으로 하나님 곁에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그분께 수반되는 모든 영광과 위엄과 더불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다(레 11:44-45, 삼상 2:2, 시 99:3, 5, 9).

그 반복조차 중요하다. 세 번에 걸친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강조점이다. 우리 하나님은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는, 그분만의 고유한 영역에 계신 분이다. 이 장면은 여호와 의 두려운 임재로 인해 산이 진동하고 웅기 가마 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던 사내신을 떠올리게 한다(출 19:18).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은 몸서리 떨고 겁이 나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분의 임재 앞에 거들먹거리며 나아갈 수 없다.

이사야 역시 결코 그러지 못했다. 스스로 의롭다는 모든 작각을 꿰뚫는 고백과 함께 그는 탄식했다. "화로부터 나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함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함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사 6:5). 그의 죄에 대한 그 어떤 변명이나 축소도 없음을 주목하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악과 철저히 분리되어 계심을 의미한다. 악은 그분을 부패시킬 수 없다. 우리 죄악의 어둠은 그분의 순결한 빛과 아무런 사귀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의 죄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언급 없이 그분의 사랑만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려는 현대의 노력들은 정작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은혜마저 상실하게 만든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증명하는 증거는 우리의 어긋남을 긍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데 있다. 비록 우리가 전에는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엡 2:1-5).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끔찍한 불순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죽으셨다.

겸손히 알던 가운데, 이사야는 훗날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사실을 경험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솥을 가져와 선지자의 입술에 대었을 때 그의 악이 제거되었다(사 66-7). 바로 그 안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동일한 복음의 그림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셨다는 점에 주목하라. 솥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는 희생 제단에서 가져온 것이었다(신 4:24, 히 12:29).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를 멸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악을 그 제물로 전가시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시키셨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종을 은혜와 용서로 덮어주셨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비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 전가하심으로,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사 53:5-6).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사 53: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가까이 품으려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고후 5:21).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요 3:16).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을 내어주시길 만큼 거룩하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들이 부족하지 않다. 정작 결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다(롬 3:18). 많은 이들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비웃는다. 또 다른 이들은 현실을 아예 자기 입맛대로 다시 쓴다(사 5:2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긍정만을 요구하며,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장벽해 버린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타락한 시대에 휘둘리거나 장단을 맞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최후의 심판과 승리가 당신께 있음을 아시며,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신다(시 21-4). 최승연 기자

“성숙한 신앙은 삶에 체화된 신앙”

최창국 교수, 복음과 도시 기고문서 일상 영성 강조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 사진)가 최근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신앙은 일상의 삶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신앙이 의식과 감정의 차원을 넘어 일상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오해"라며 "20세기 영국 성공회 대주교이자 사회윤리 사상가였던 윌리엄 템플은 하나님이 단지 신앙의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실수라고 했다"고 했다.

또 "전도서의 전도자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까(전 9:7)고 말한다'며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때 기뻐하신다는 의미이지만, 일할 때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깊은 차원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야 더 정상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신앙을 의식의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거나 자주 언급하는지라는 양적 지표만으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주일의 뜨거운 감정이 월요일의 차분한 성실함으로 변환되도록 성도들을 지도해야 한다.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일상의 일에 성실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못할 만큼 일에 집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실의 기쁨 속에 있을 수 있다"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매번 의식의 전환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인식의 한 모습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핵심은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의식 수준, 곧 이성과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 아니라 몸에 밴 신앙으로 깊어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야 한다는 데 있다"며 "교회는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는 모습을 곧 좋은 신앙으로 여기려는 유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연애 기간을 지나 결혼하면 사랑이 뜨거운 감정에만 매이지 않듯, 신앙이 깊어지면 격정적인 감정은 잦아들 수 있다. 이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거처가 의식에서 더 깊은 무의식(unconscious)과 존재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사랑은 예전처럼 매 순간 가슴이 뛰거나 특별한 감정이 매일 몰려오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공기처럼 혹은 늘 곁에 있는 배우자처럼 당연하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 신앙도 그렇게 삶의 깊은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 굳이 애써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삶의 양식과 가치관 속에 신앙이 녹아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계의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으로 바뀐 신앙"이라며 "의식적인 노력이 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존

재 자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 신앙은 결정적 순간에 피어나는 꽃처럼,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는 평소에는 무뎠던 태도 보이던 노부부가 한쪽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거는 순교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숙한 신앙은 의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 체화된 신앙"이라며 "평온할 때는 신앙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고요하지만, 삶의 거대한 풍랑이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신앙은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하나님에 내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는다. 이때의 신앙은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의지적 투신의 모습을 지닌다"고 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고난의 시기에 비로소 그 신앙의 깊이가 증명된다"며 "교회는 성도들을 이성과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안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뜨거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매 순간 가슴이 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깊은 신앙의 한 모습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녹아든 일상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말하는 데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식, 노동의 성실함과 고난 앞의 인내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했다.

또한 "교회는 신앙의 질서가 일상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은 누구나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구호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대신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양식 자체가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교회와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질서를 입술이나 의식에 가두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번역해 내는 능력"이라며 "신앙이 일상의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백에 불과하며 그 믿음은 공허한 관념에 머물 수 있다. 교회는 일상이 신앙이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안정

가계 노후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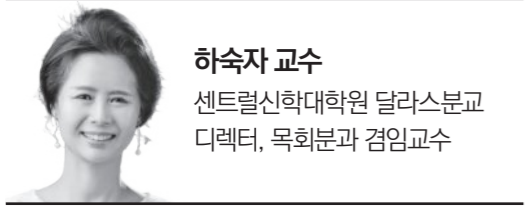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생활 안정

나를 잊는 은총,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유



하숙자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달라스분교
디렉터, 목회본과 겸임교수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는 소인국에서는 거대한 존재로 추앙받지만, 대인국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사실 달라진 것은 걸리버 자신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 비교의 기준이었습니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인간 자아의 상대성과 불안정성을 잘 보여 줍니다. 인간은 비교의 대상과 환경에 따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소평가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는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외적인 인정과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적 자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기준과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규정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소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걸리버를 영웅처럼 떠받치고, 반대로 대인국 사람들이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인간 역시 비교의 틀 속에서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결국 갈등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아의 공허와 지나친 자기몰입에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시각이 굳어지면 상대의 패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정하려 하거나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 중심의 자아는 결국 자신을 타인보다 높이려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C. S. Lewis는 이 교만의 핵심이 바로 ‘경쟁심에 있다고 지적합니다.^[1] 그래서 교만한 자아는 단순한 소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타인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자 하며, 비교 우위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려 합니다.

소인국에서 걸리버가 압도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모습은 인간 자아의 상대성을 잘 보여 줍니다. 인간의 자아는 비교 우위에 놓이는 순간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고 쉽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팽창이 바로 우월감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한 결을 더 나아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가? 팀 켈러 목사는 열등감 역시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열등감이 어떻게 교만과 연결된다는 것일까요?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비교를 통해 우월해진 자아는 언제나 조건적 우월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하거나 낫다고 여겨지는 상대 앞에서는 스스로를 크게 느끼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마주하는 순간

곧바로 위축됩니다.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에서는 거인이었지만 대인국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것처럼, 비교 우위를 잃는 순간 자아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짐이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열등감은 우월감의 정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월감을 유지하려던 시도가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얼굴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먼저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그 비교에서 밀리는 순간 감추어져 있던 공허함이 열등감이라는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 다른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열매입니다. 둘 다 ‘비교라는 거울 앞에 선 자아가 만들어 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인간의 자아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우물거렸다가 움츠러드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비교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함’^[2] 을 강조합니다. 결국 비교는 자아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부르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과의 우열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을 과장할 필요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비교가 아닌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 또한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인 휴브리스(hubris)^[3]가 아닌 푸시우(phusioō)^[4]를 씁니다. 푸시우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팽창, 즉 안에서 바람이 가득 차오르듯 자아가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어로는 ‘바람이 한껏 들끓었다’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풍선이 바람을 가득 품을수록 팽팽하게 부풀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듯이, 푸시우의 자아 역시 겉으로는 우월하게 부풀어 있으나 정작 그 중심은 비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5]

이러한 교만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거리만큼 내면의 고통은 깊어집니다. 자신을 부풀릴수록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좁아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큰 인정을 갈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영적 ‘수고’를 치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전문가를 찾아 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전력투구하듯, “왜 이토록 우리의 내면이 곤고한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천하나 인간 본성의 기저는 불변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인간 자아의 실존적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곧 인간의 자아는 공허함과 고통, 분주함과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



Two islands floating in the air are connected by a stone bridge. 서로 다른 색과 형태를 지닌 두 섬이 각자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각기 다른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Illustration by Freepik.

다는 것입니다.^[6] 각각을 좀 더 풀어보면, ‘공허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아의 중심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고, ‘고통’은 그 빈 자아를 채우려 끊임없이 인정과 비교를 추구하기에 항상 상처받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분주함’은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비교와 자랑으로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모습이며, ‘연약함’은 그 모든 시도가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가 별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아가 필연적으로 거처게 되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인간의 원죄적 상처에서 비롯되는 ‘자아의 고통’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러한 고통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곧 인간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할수록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 결과 내면의 갈등과 고통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실존적 갈등은 자기 함몰적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7]

팀 켈러가 설명하는 ‘자아의 고통’은 일상 속 비유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건강한 신체 부위를 평소 특별히 의식하지 않듯, 건강한 자아 역시 자신에게 과도하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아는 타인의 사소한 말과 반응에도 쉽게 흔들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는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8] 바울은 인간의 시선이나 자기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를 보여 줍니다. 즉 인간의 실존적 고통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삶에서 비롯되며, 성경은 이러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나아가길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지난해 10월, 저는 구안와사(안면마비)를 겪으며 ‘자기 망각(Self-forgetfulness)’의 역설적 진리를 신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되자, 음식을 입 중앙으로 모아 자연스레 식도로 넘기는 ‘연하 작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육이 강건할 때는 그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했지만, 기능이 상실되자 그 존재를 고통스럽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망각이란 자신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켈러 목사의 표현을 빌리면,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타인을 향해 시선이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아가 배경으로 물러나, 온전히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영적 건강함도 이와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신체 근육이 완벽하게 기능할 때 ‘무의식적 기능’

상태가 되어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듯, 건강한 자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에 과하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아프다’는 것은 곧 자아가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자기 망각’의 은총, 즉 참된 건강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저의 자녀를 키우며 제가 도달한 신정론적 결론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는 학업을 완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엿한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세 손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자녀를 보며, 저는 누군가 내 아이의 약점을 풀어주고 고유한 강점을 존중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역시 공짜가 없으시네”라는 우스갯소리 섞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그 존중과 자비의 무게만큼, 나 또한 타인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평함의 원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내 입맞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가 가진 ‘나랏’의 국경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공평한 시선을 나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갈등관계를 풀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아라는 협소한 감옥에서 출옥하여 타인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잊는 그 자유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진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최종 판결을 선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9] 이 판결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비교 이전에, 성취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되뇌며, 나를 증명하려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의 지평으로 나아가십시오.

〈각주〉
[1] C. 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이종태 옮김 (서울: 흥성사, 2001), 3부 8장 「가장 큰 죄」.
[2] 고전 7:17
[3] 휴브리스(hubris)는 그리스어로 ‘도를 넘는 교만 혹은 자만심’을 뜻함. 단순히 마음속으로 우월감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 발현에 초점.
[4] 팀 켈러,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서울: 두란노, 2013.
[5] Ibid.
[6] Ibid.
[7] Ibid.
[8] 고전 4:3
[9] 막1:11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신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하나님은 커튼 뒤에 계신다

이상명 총장
프레스티지대학교 총장



이상명의 광장과 골방(6)

현대 무신론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대의 자기 파괴 속에서 서서히 일태되었다. 1914년, 기독교 문명을 자처하던 유럽의 열강들이 참호 속에서 서로를 학살하기 시작했을 때,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철학의 언어에서 역사의 현실로 내려앉았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수백만의 주검과, 신을 향한 뿌리 깊은 회의였다. 사르트르와 카뮈가 신 없는 세계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탄이 지나간 자리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실존적 울부짖음이었다.

그러나 더 깊은 균열은 두 번째 전쟁에서 왔다. 20세기 인류는 홀로코스트라는 전례 없는 조직적 학살을 통과하며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

간 수백만 생명의 비명 속에서 신은 침묵하는 듯 보였다. 엘리 위젤은 『밤』(1960)에서 교수대에 매달린 소년을 바라보며 한 수감자가 묻는 장면을 기록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침묵은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퍼져나가 20세기 신앙의 심장부를 관통했다. “인간이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 이 질문은 교회를 떠난 수많은 이들의 등을 밀었고, 그 빈자리는 냉소와 허무로 채워졌다.

그 질문은 오늘 이 땅에서 더욱 날카롭게 살아 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려워 커튼을 닫고 사는 이민자의 집에서, 신의 침묵은 교리가 아닌 공기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추방의 공포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민자들, 자녀와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부모들, 코로나 이후 수많은 한인 교회에서 자녀 세대가 조용히 떠나고 1세대의 무릎 꿇는 신앙과 2세대의 돌아선 등 사이에서 교회가 균열되는 현실 — 이 모든 자리에서 신의 침묵은 더욱 깊게 울린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신의 외면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가장 깊은 동행인가. 이것이 이 글이 묻고자 하는 핵심이다.

현대 신학의 거장 윙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다시 정의한 인물이다. 17세에 징집되어 전쟁 포로

로 영국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내며 동료들의 죽음과 조국의 패망을 목격했던 그는,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전능자가 아닌 ‘고통 받는 하나님’으로 만났다. 그의 주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1972)에서 몰트만은 십자가를 신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지신 하나님의 처절한 연대로 읽는다.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리며 그 비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였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만들어낸 신의 부재라는 물음에, 몰트만은 십자가라는 가장 오래된 답으로 응수했다.

이 통찰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1966)에서 문학적 절정으로 형상화된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신자들의 고통 앞에 침묵하는 신을 원망하던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성화(聖畵) 앞에 선다. 그 순간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밭아라. 네 밭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밭아라. 나는 너에게 밭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엔도 슈사쿠, 『침묵』 원문 대) 신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아래서 함께 짓밟히는 가장 깊은 동행이었다. 낯선 땅에서 밭하며 살아온 이민의 삶은 이 장면을 추상이 아닌 살로 읽게 한다.

이 희망의 에너지는 역사의 아픔을 뚫고 지나온 이들의 삶 속에서도 공명한다. 소련의 굴라크(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모든 소유와 자유를 박탈당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 영혼의 불멸함을 『수용소 군도』(1973-1975)에 기록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깊은 신앙 안에서 고통을 견디며 진실을 선포했다. 몰트만이 말한 ‘앞서 오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솔제니친은 그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다른 언어로 살아냈다. 희망은 현실을 미화하는 낙관이 아니라, 거짓의 체제에 맞서 영원한 진리를 불드는 영혼의 저항이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십만 군중에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가 아니었다. 몰트만은 이것을 ‘선취(anticipation)’라고 부른다 —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정의와 해방을 오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현재의 불의에 맞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몰트만이 폐허의 유럽에서, 킹이 짓밟힌 흑인 공동체의 현장에서 각자 도달한 희망의 언어는 놀랍도록 같은 구조를 지닌다 — 약속된 미래가 현재를 변혁하는 힘. 자녀의 빈 예배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삶, 추방 통보를 기다리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감내

하는 이민자의 삶 — 그것도 그 선취의 다른 이름이다.

성서적 희망은 현실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반전이다.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뀐 부활의 사건처럼, 희망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절망적 현실에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거부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역동적인 의지이며, 약속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나그네의 행진이다.

삶의 저변이 무너지고 신의 침묵이 깊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몰트만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은 이미 도착해 계신다. 새벽마다 커튼을 닫아야 하는 그 집 안에, 자녀의 빈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로 새벽을 지새우는 그 기도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신다. 그 침묵의 시간은 외면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가장 깊은 포용이다.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재해석한 몰트만, 박해의 침묵 속에서 밝히는 예수를 그린 엔도, 굴라크의 바닥에서 영혼의 불멸을 기록한 솔제니친 — 이들이 증언하는 희망은 하나같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커튼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다.

하나님의 공의 바르게 이해하기

여인갑 장로
(취시스코프 대표이사)



여인갑의 바IBLE 스토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그것을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나 윤리적 공정성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사랑과 공의는 동일한 것이니,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열망 자체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할 때 신앙의 본질은 흐려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이해해 보자.

1. 공의의 성경적 정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른 심판”

성경에서 “공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משפט)와 헬리어 디카이오스네(δικαιοσύνη)는 단순한 공정함이나 도덕적 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반드시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를 포함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여 정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이다” (사편 9:8) 여기서 공의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판단과 심판이다. 하나님은 단지 선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사편 89:14a)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 위에 서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수반한다는 뜻이다.

2. 사랑과 공의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한일서 4:8b)는 말씀을 근거로, 공의와 사랑을 동일한 개념처럼 혼합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과 공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랑은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이고, 공의는 죄를 향해 행하시는 심판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출애굽기 34:6-7)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 죄를 반드시 다루신다. 즉, 사랑은 죄인을 향하고, 공의는 죄를 향한다. 이 둘을 동일한 차원에서 “공의를 실천하자”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서 심판하려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3. 공의를 인간 윤리로 축소할 때 생기는 문제

현대 교회 안에서 “공의”라는 단어는 종종 사회적 정의, 평등, 윤리적 책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이러한 가치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동일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19). 공의의 집행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이 공의를 실현하려 할 때, 그것은 쉽게 정죄, 분노, 자기 의로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정의를 말할 때 종종 복수를 원한다.” 이 말은 매우 통찰력 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른 심판 욕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4. 십자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조화

를 이룰까? 그 답은 십자가에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25)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철저하게 집행된 사건이다. 죄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했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공의는 십자가에서 포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감정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명되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5. 성도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그렇다면 성도는 공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까?

첫째, 공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복음 전파이다.

둘째, 자기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빛 아래 서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심판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라...” (사편 51:1a)

셋째, 타인에게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것은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다.

넷째, 십자가 중심의 공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공의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윤리적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적 기준과 행위이다. 이 공의를 인간의 사회적 정의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랑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적 균형을 잃게 한다.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려 하기보다, 먼저 공의 앞에 서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도다” (사편 98:2). 그 공의는 심판으로 드러났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구원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센충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쟁을 이겨, 힘센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쟁특별도 충청남도

백 년을 살아보니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올해 106세를 맞으신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철학자이지만, 또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여러 책을 집필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의 책은 바로 《백 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이 책은 교수님이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켜보며,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가'를 담담하게 풀어낸 인생 지침서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라는 점입니다. 책에서 교수님은 이 시기가 말로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는 때'라고 소개합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이므로, 은퇴 후에도 공부와 취미, 사회 활동을 멈추지 말고 끊임 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둘째, 행복은 '인격의 크기'와 비례하

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돈과 권력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인격이 넓고 깊은 사람일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롭고, 그 주변에 사람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사랑을 위한 고생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사랑으로 감당한 고생은 시간이 흐른 뒤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전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나이 들수록 갖춰야 할 삶의 태도를 몇 가지 제안합니다. 나아가 들어도 책을 읽어야 하고, 재물이나 자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며, 건강을 위해 늘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권면합니다. 최근에 우리 감사한인교회에 100세 생신을 맞으신 권사님이 계셔서 축하 심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따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따님의 연세도 이미 70세가 넘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등은 비록 굽어 지셨지만 여전히 총명하셨고, 생각이 넘치셨다는 점입니다. 드시는 약도 작은 용량의 혈압약이

전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권사님의 다른 형제분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님께 건강 비결을 여쭙어 보니, 소식(少食)하시는 생활습관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일제 강점기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겪으셨던 여러 가지 고초를 듣게 되었습니다. 22살 나이에 노체녀로 낙인 찍혀, 후시 전쟁(정신대 등)에 끌려갈까 봐 나이 어린 고등학생 남편과 서둘러 강제 결혼을 해야 했던 일, 당시 여성들은 꿈도 꾸기 어려웠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할 실력이 있었으나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고루한 사고방식 때문에 눈물로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역울한 상황, 그리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홀로 네 자녀를 키우며 눈물로 고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께서서는 그 모진 세월을 그저 "모두 다 지나간 세월일 뿐"이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나, 크게 한 일도 없고 내세를 것도 없다"며 겸손해 하셨습니다. 연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지"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제게는 권사님의 그 고백과 모습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신 인생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지난 100년의 삶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모든 시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황금기입니다. 또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에 비례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이라 말로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선교 같은 영적 활동을 끊임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육 간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 단순히 '100세까지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사회생활과 도덕지수



이선규 목사
대림다문화센터 대표
연합교회 담임

경제성장과 정보화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풍요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얼마 전 공원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를 말리려 하자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데 간섭하느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책임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처럼 느껴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에 갇혀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이러한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질서 있는 문명사회가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경제를 통한 자발적 협력과 교환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권력을 강조하는 사상은 전체주의적 사회관으로 발전하기도 했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도 위험하다. 자유가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흐르면 공동체 질서와 도덕성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유희문화·무신론적 사상은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그리고 초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자유 역시 책임과 도덕이라는 토

대 위에 설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 운전기사가 세상을 떠난 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도착했다는 우화가 있다. 하늘의 음성은 그에게 천국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지옥으로 가겠다고 고집한다. 이유를 묻자 그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혼자 있는 곳은 건널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이야기다. 이 우화는 인간이 얼마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도덕적 삶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빌립보서 4장 8-9절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옳고 그름보다 내편과 네 편을 먼저 나누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정결함보다는 욕심이, 배려보다는 경쟁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결함이란 단순히 외적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편견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과 경쟁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고 있으며,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도덕과 신앙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올바른 가치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다. 특히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다음 세대에 건강한 가치관을 전해 주어야 한다. 신앙 역시 관념이나 명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거창한 구호보다도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일지 모른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 있는 삶, 그리고 신앙과 도덕이 함께 어우러진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다.

잠수함보다 깊은 것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펍텍

며 한국 잠수함의 장거리 운용 능력과 통신 호환성, 작전 체계를 직접 검증했다는 사실이다. 현지 군 관계자는 "1999년 식 혼다를 타다가 신행 테슬라를 탄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한다. 우리 기술의 성취가 먼 바다에서 조용히 증명된 순간이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조선 기술과 방산 역량을 검증하는 시대가 되었다. K-조선 박3가 글로벌 수주 30조원 호황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잠수함이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모습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연결된 이번 항해는 단순한 군사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는다. "이쯤 되면 한국형 핵잠수함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분명 커졌다. 핵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를 다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약 1만4000km의 대장정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와이에서부터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이 실제 탑승해 항해를 함께하

을 위해 강해져야 하는가. 강한 군대는 중요하다. 그것은 현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마중 해군 패권 경쟁 속에서 국방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앞에서 국방력 강화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강한 무기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역사는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20세기는 가장 강한 무기가 가장 끔찍한 전쟁을 만들었던 세기였다. 핵무기가 등장했지만 인류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냉전은 끝났어도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는 해양패권주의 시대를 넘어 우주패권주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바다 아래 잠수함 경쟁이 끝나기도 전에, 우주 위성 무기와 인공지능 전쟁 준비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평화는 군함의 가철 갑판 위에 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평화 전략은 두 개의 축이 함께 가야 한다. 첫째는 현실적 역지력이다. 북한을 의식한 과시 수준을 넘어, 국제 질서 안에서 신뢰받는 방위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군사력은 전쟁을 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신뢰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캐나다와의 연합 검증처럼 "함께 안전을 지키는 동맹"이 중요하다. 둘째는 더 중요하다. 평화 잠수함의 문화를 키우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배우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세대가 연결되는 공동체 훈련을 회복해야 한다. 국제관계도 군사외교 못지않게 문화외교, 인도주의 외교, 기후협력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신뢰 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진국 아닐까. 도산안창호함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동시에 사람을 길러야 나라가 산다고 믿었다. 나라의 힘은 무기만이 아니라 국민의 품격과 사랑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어쩌면 이번 캐나다 항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일지도 모른다. 잠수함은 깊은 바다를 건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질문을 건넬어야 한다. "우리는 무기로 평화를 지킬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런데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 준비는 되어 있는가?"

를 위해 강해져야 하는가. 강한 군대는 중요하다. 그것은 현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마중 해군 패권 경쟁 속에서 국방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앞에서 국방력 강화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강한 무기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역사는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20세기는 가장 강한 무기가 가장 끔찍한 전쟁을 만들었던 세기였다. 핵무기가 등장했지만 인류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냉전은 끝났어도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는 해양패권주의 시대를 넘어 우주패권주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바다 아래 잠수함 경쟁이 끝나기도 전에, 우주 위성 무기와 인공지능 전쟁 준비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평화는 군함의 가철 갑판 위에 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평화 전략은 두 개의 축이 함께 가야 한다. 첫째는 현실적 역지력이다. 북한을 의식한 과시 수준을 넘어, 국제 질서 안에서 신뢰받는 방위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군사력은 전쟁을 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에큐메니칼 교회관 평가(3)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약화하는 교회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편집한 『세계를 위한 교회』에서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교회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거나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 자신이 이 세상,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의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한 부분임을 깨달을 때만 참 교회가 될 수 있다. 2.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상과의 격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이요 교회 자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임을 알고 세상 속에 현존하는 것이다. 3.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지 않음을 깨달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징조 (signs)를 식별하기 위해 언제나 깨어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 비기독교인들과의 겸손한 대화와 교제가 없이는 참 교회를 할 수 없다. 이 대화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경청하고 수용할 준비를 갖춘 파트너의 역할이다. 세상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신학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물먹듯이 짓는 무리들이며 머지 않아 멸망할 곳으로 간주되면서, 세상은 구원을 받을 때만 소망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협의회 신학에서 세상은 아주 다르게 이해된다. 앞서 보았듯이 세상은 교회보다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할 수 없고,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므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겸손히 세상과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로 인해 이제 "하나님-교회-세계"의 도식은 "하나님-세상-교회"로 바뀌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1차적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구심점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협의회는 강조한다. 협의회가 이처럼 세계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반면 회심으로 인한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지니면서, "전통적인 복음전도에서 회심의 일반적 강조는 교회 출석, 교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 등과 같은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전제하는 경향을 지녔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복음전도는 안에 있는 사람 (insider) 편에서 밖에 있는 사람 (outsider)을 안으로 초청해 들이는 개종 (proselytism)의 형태가 되어 왔다."라고 말하면서 전통적인 교회 성장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고 높은 담을 쌓고 세상의 변혁에 무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를 강조하는 협의회 교회관은 일정 정도 기여점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세상과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길로 오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도구로 택하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과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은 엄연히 구분지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한 죄의 무리들임도 동일하게 강조해야 한다. 만일 전자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대상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간화를 이루는 것에만 교회 사역의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세상을 지나치게 긍정적 시선으로만 보면서, 세상과 교회 경계선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경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회의가 들 수 있을 것이다.

협의회 교회이해에서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관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자칫 교회의 정체성을 약화시켜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약화되어버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교회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때 교회가 세상에 참여적이 되는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교회는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잘 볼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초기 이스라엘이 이방과 섞이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739-8119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2700-3297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社說

새 정부가 그려온 '차별금지법'의 밑그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기해 공개한 성과자료집과 이른바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내용이 언급됐다.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을 국정 목표로 법제화 토대 마련 차원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엔 현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인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가 설정됐다.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의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표현과 차별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전 단계로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2026년 2월)해 취약 계층 보호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범 1주년을 기해 공개한 국정 과제 추진 실적 자료에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내용을 자세히 수록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반드시 법제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당시 '인권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제를 설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지만 정부가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위해 이토록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교총 등 교계 기관을 방문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일은 속도를 낼 시급한 일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교계의 목소리를 잘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도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진보 당 소속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대해 소수당이 발의한 것이 "격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까지 했다. 이태놓고 법제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짜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굳이 끝대로 믿느냐는 말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 아니다. 굳이 믿었던 도개에 발등 찍힌 풀이란 소릴 듣더라도 한국교회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의 말은 법인(法人)과 달라야 한다.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신의와 약속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그려온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밑그림 그 어디에도 그런 신중함과 고민이 엿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하겠다" "교계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이 그새 허공으로 사라진 것일까. 새 정부의 목표인 '인권 선진국'은 결국 국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룩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 안 될 것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유엔의 현 주소

국제연합(UN 유엔)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데 유엔이 벌어진 평화 유지 활동과 인도주의 임무 실천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유엔이 재정적 위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분담금 42억800만 달러(약 6조 4500억 원)를 내지 않은 데다 중국까지 상습적으로 납부를 지연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은 국제 분쟁 해결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해 왔고 중국 또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분담금 납부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결국 유엔 사무국은 직원 3000명을 감축하고 일부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긴축에 들어갔다. 또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병

력 일부를 축소하고 평화유지군 활동비용도 삭감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유엔 본연의 임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는 전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임무와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인도주의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할 거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틀어쥐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분담금 납부를 전제로 유엔의 조직 개편과 정책 변화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관련 기관 31곳을 포함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데서 보듯이 더 이상 유엔의 호구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심사인 거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를 상징해 온 전 세계 국가들의 연합체다. 76년 전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 남침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는 당시 유엔 산하 16개 국가병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유엔이 처한 오늘의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지금의 유엔은 그 때의 유엔이 아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노골적인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등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유엔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금전적인 수혈만으로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 도처의 분쟁의 구경꾼노릇이 아니라 해결사의 위치에 서는 게 유엔이 해야 할 급선무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중독 인구 1천만 추정... 중독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자”

중독예방시민연대, 제14회 ‘중독추방의 날’ 행사 개최

중독예방 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아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치유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두번째출발 사회적협동조합, 기독교사회책임은 지난 5월 29일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제14회 ‘중독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 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사행산업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성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주최 측은 “NO 중독! 중독 없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각종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독예방시민연대에 따르면 국내에는

알코올 중독자 약 20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40만 명, 마약 중독자 70만 명, 담배 중독자 150만 명, 성중독 문제자 200만 명 등 약 1,000만 명이 각종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최 측은 중독 중독 사리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중독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수백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행성 게임 문제,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도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소망하며 시작한 행사가 벌써 14회째를 맞았다”며 “그동안



제14회 ‘중독추방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으로 중독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관련 법령 제정과정과 정책 시행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분야는 여전히 시대 변화에 걸맞은 대응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내년 15회 행사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강신성 이사장(두번째출발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독 회복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회복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성 대표(기독교사회책임)는 “많은 중독자들을 만나보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하며, 특히 중독을 죄악으로 인식하는 종교계가 문제 해결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5대 중독(도박·알코올·게임·마약·성) 예방 및 치유 정책 수립과 관련 법령 정비 촉구했다.

성명서 낭독은 김영일 목사(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대표)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독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종교

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 알콜중독예방법개정, 중독예방법·성중독예방법 제정, 중독 예방치유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향해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추방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의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독예방시민연대는 2013년 제1회 중독추방의 날을 선포한 이후 매년 5월 29일을 기해 중독 예방과 치유, 건강 한 가정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주최 측은 “5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오늘 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내자’라는 슬로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신앙·성품·실력 갖춘 시민활동가 양성”... 1기 아카데미 개강

새로남교회서 7주 과정 진행... 인권지도사 자격과정 연계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약칭 시활본)가 신앙과 성품, 전문성을 갖춘 시민활동가와 인권지도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활동가 & 인권지도사 1기 아카데미’를 개설,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시활본은 최근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시민활동가 & 인권지도사 1기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60여 명이 등록했으며, 첫 주 강사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해 온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와 차별화해 한국 인권지도사협회와 협력하는 인권지도사 자격과정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주최 측은 추가 강의를 이수할 경우 인권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데미는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전인권센터가 주관한다. 또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행동등을



시민활동가 & 인권지도사 1기 아카데미 1주차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시활본

바라거나 반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립(진평연), 에스더기도운동, 새로남교회 등이 후원한다.

주최 측은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한 배경에 대해 “반기독교 문화와 PC주의, 젠더성혁명, 다문화주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 평등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법적극주의 판결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며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활동가와 인권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으로는 김원평 교수(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주요섭 목사(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

민행동 공동대표),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한국인권지도사협회 총괄본부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엄태석 교수(전 서원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한다.

강의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주요섭 목사가 ‘시민단체·시민활동가의 중요성과 용어·전술의 이해’, ‘인권보호의 영역과 세계인권의 맥락’, ‘LGBT 세력화 흐름과 효과적 대응전략’, ‘프레임 전략과 현장활동 노하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김원평 교수가 ‘시민운동 주안점과 현장활동가의 중요성’, 이용희 교수가 ‘기독교 시민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각

각 강의한다. 또 김영길 목사는 인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강의하며, 엄태석 교수는 ‘민주시민 교육의 이상과 현실’,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교육을 주제로 강연한다.’

시활본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시민활동가양성아카데미가 그동안 다수의 활동가를 배출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민활동가와 인권지도사의 의미와 사명감을 배우고 현장 활동의 노하우를 익히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 회비는 교재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7만 원이며, 참가 희망자는 주최 측에 문의(010-5703-9146)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 절반 “적정 금액은 월 40만 원”

국민연금연구원 실태조사... 현 수준 적정 응답은 19.9%

기초연금 수급자 2명 중 1명 가까이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 수준인 월 34만2000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9.9%에 그쳤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50만원 20.0%, 월 45만원 12.4% 순이었다.

◆ 개인 월소득 126만6000원... 기초연금 비중 26.0%

기초연금 수급자의 개인 월 소득은 평균 12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평균 33만원으로 전체 경상소득의 26.0%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92만1000원이었으며, 식비 비중이 51.9%로 가장 높았다. 차량 보유 비율은 22.1%였고, 차량 보유자 중에서는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중형차 보유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다. ◆ 수급자 42.8%는 현재 근로 중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42.8%였다.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50.7%,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6.6%였다.

근로 중인 수급자의 직종은 청소업무가 18.3%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 14.1%, 공공질서 유지 업무 12.7% 순이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5점 만점에 3.23점 기초연금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조사됐다. 남성, 80세 이상 고령층, 농어촌 거주자, 노인 단독 수급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초연금이 고령층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급자들이 현행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나래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 반려동물 산책&장례
-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App) 기반 전국 매장 시스템 구축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오면 즉시 운영 가능
-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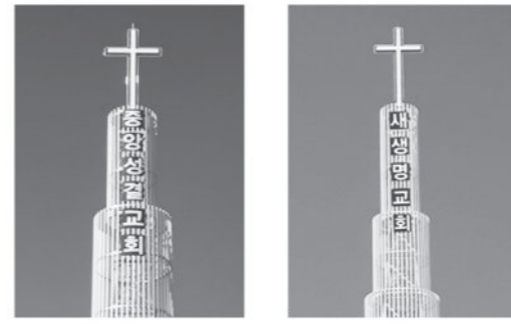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 덕 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 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성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성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성교회: 032-512-3375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60개 언어 번역

2세기 기독교는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형성했는가

신간 '기로에 선 기독교'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직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의 뼈대를 갖추게 되었을까? 신약 정경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깊이 연구해 온 마이클 크루거의 신간 『기로에 선 기독교』는 바로 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전환의 소용돌이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는 2세기를 학자 래리 히타도의 표현을 빌려 “신데렐라와 같은 세기”라고 부른다. 1세기처럼 교회의 토대가 놓인 화려한 시작점도 아니었고, 3-4세기처럼 복잡한 교리 논쟁이 꽃피우며 승리를 거머쥔 시기도 아니었기에 쉽게 경시되어 왔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이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의 이단적 분열과 외부의 잔혹한 박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사도들이 남긴 복음의 불씨가 이대로 덧없이 꺼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뒤덮을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것인지 결정지어야 하는 아슬아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책은 2세기 기독교가 마주했던 위기와 치열한 대응 방식을 총 7장에 걸쳐 다섯 가지 전환의 영역으로 세밀하게 해부한다.

◆**사회 및 문화-정치적 전환:** 낯선 세상과 제국의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는가?

◆**교회론적 전환:** 흩어진 공동체의 질서와 구조는 어떻게 굳건하게 확립되었는가?

◆**교리-신학 및 문헌-정경적 전환:** 이단과 정통의 경계를 어떻게 그었으며, 우리가 믿고 읽어야 할 성경(정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를 거쳐 결정되었는가?

저자는 일차 자료와 이차 자료를 균형 있게 활용하며, 2세기 성도들의 피땀 어린 분투가 향후 2,000년에 걸친 기독교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논증한다. “2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각종 도전과 장애물, 변화가 향후 2,000년에 걸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의 내용과 교회의 구조,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조차도 사실은 2세기의 치열한 위기 속에서 빛이 난 것처럼 같은 산물이다.

『기로에 선 기독교』는 2세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낼 탁월한 개론서이자,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생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묻게 하는 뜻깊은 거울이다. 기독교의 뼈대가 세워진 형성 과정이 궁금한 성도들과 초기 교회사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최승연 기자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눈물 일지

신간 '하나님의 눈물'



질곡 같은 삶 속에서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영혼을 찾아와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신간 『하나님의 눈물』이 출간됐다.

〈갈릴리 리멤버〉와 〈작은예수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진교 목사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상처 입고 굳어져 버린 자신의 인생을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우셨다. 그것도 3번이나 우셨다. 나사로의 장례식장, 예루살렘 성벽 앞, 겔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 상황은 다르

지만 이유는 하나였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위로와 간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서사를 묵직하게 짚어낸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기어 이 찾아내신 예수님, 저자는 슬허하게 넘어지는 우리를 업고서라도 기어 이 가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을 애뜻한 언어로 그려낸다.

특히 이 책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연결하여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예수님은 함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 십자가를 ‘꼭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

세상 그 어떤 부모도 남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저자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릴 리가 없다”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꼭마름’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넘어질 자리를 미리 아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 기다리셨듯,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앞서가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최승연 기자

“관계의 해답은 십자가”… 윤호용 목사, 신간 ‘관계의 은혜’ 출간

알래스카 이민목회 경험과 신앙 통찰 담아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며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에 헌신해 온 윤호용 목사가 관계의 본질과 회복의 길을 다룬 신간 『관계의 은혜』를 펴냈다.

저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 오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목사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관계의 출발점은 십

자가”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만남의 축복을 통해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한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 ‘만남 안에서 누리는 은혜’, ‘위기 안에서 누리는 은혜’,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은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주제 아래 관계와 공동체,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56편의 묵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자는 관계를 정원에 비유하며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오해와 상처를 넘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관계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위기와 고난,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라는 장에서는 삶의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천천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원치 않는 상황과 고난도 은혜와 감사가 된다”고 말한다. 또 “세우고 살리는 관계의 함”에서는 필요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가 아닌 사랑에 기초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을 관계의 모델로 제시한다.

윤 목사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긴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체득해 왔다. 1989년 알래스카로 이주한 그는 사업가로 성공을 경험한 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 현재 은혜와 평강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알래스카교회 연합회 회장과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부총회장을 맡고 있다. 김진영 기자

6월, 작가들의 말말말



각자가 생각하던 경계에서 만나 주님의 은혜로 경계가 느슨해지고, 뜨겁고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며 종교의 틀과 이름을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이자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월요일의 업무와 화요일의 통화, 수요일의 설거지와 목요일의 대화, 금요일의 피곤함과 토요일의 이웃 안부 속에서 복음의 태도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제’와 ‘목회자’라는 특정 직분을 가진, 범접하기 어려운 ‘성직자’가 아니라 ‘사제’ 또는 ‘목회자’라는 역할을 맡은 ‘신앙 동료’를 만나고 싶습니다. 원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공간에서 새로운 힘을 받고 새로운 상상력을 얻어서, 그것이 열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김운준, 문지윤, 우동준, 차재상 ‘느슨한 교회’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은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이 간구하도록 돕는 분이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염려하지 말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골 3:5). 그분의 뜻이 담긴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 주신다. 그 결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주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예스더, 장덕봉 ‘생존을 위한 기도’



선교적 교회론은 ‘크리스텐덤’ 체제에 갇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깨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도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회복하게 했다. 이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며, 교회의 네 가지 참된 표지(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가 더 이상 교회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역동적인 사명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수정한다. 선교는 단순히 타 문화권에 가는 것, 전도에만 집중하는 것 혹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비전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문화양식을 도입하는 것, 단순히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도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진지하게 찾고, 역사를 반성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복음으로 반응하여 ‘대항 문화적 복음 공동체’를 세우려는 근원적인 시도다. 장현익 ‘선교적 사중복음 목회’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문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가뭄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효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마다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96)**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이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인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가납 필만한 제물로써 당신이 보시는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폴리갑이 기도를 마치자 집행관들이 불을 붙였다. 이때에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불길의 크게 솟아올랐을 때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듯처럼 동근 형태를 이루어 폴리갑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다. 불길 가운데 있는 폴리갑은 전혀 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금이나 은 같았다. 뿐만 아니라 불길은 사방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었다. 폴리갑이 불

에 타죽지 않자 유대인들을 비롯한 박해자들이 집행관에게 칼로 찔러 죽이라고 외쳤다. 집행관이 칼로 폴리갑을 찌르자 피가 솟구치며 불이 꺼져 버렸다.

폴리갑이 순교한 후 기독교인들은 폴리갑을 장사하기 위하여 시신을 요구했으나 유대인들이 발때같이 들고일어나 반대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폴리갑이 순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두려워했다. 때문에 그들은 해롯의 아버지이며 달세(Daice)의 형인 니세타스(Nicetas)를 총독에게 은밀히 보내어 만약에 폴리갑의 시신을 내어주면 그의 추종자들이 폴리갑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충동질했다. 유대인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인하여 폴리갑은 다시 화형에 처해졌다.

(《세비우스의 교회사》, 엄성옥 역, 제14장 사도적교부 폴리갑. -p.217.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서머나 교회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um) 교회로 보내진 서신을 통하여 전승되었는데 그것은 스테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의 순교에 대한 최초의 자세한 공식 기록 문서였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um)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 내용이다.

서머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필라

델피아(Philadelphium) 및 각처에 있는 거룩한 보편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에게 순교자들과 복된 폴리갑에 관한 일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폴리갑은 마치 자신의 순교로서 그것을 인봉하려는 듯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온몸에서 우혈이 낭자하게 흐르며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보이게 된 모습을 보고서 지극히 놀랐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다조개껍질이나 땅위에 놓인 창에 끝에 놓여졌으며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들의 발로 던져졌습니다.

대단히 고귀한 청년 게르마니쿠스는 특별히 훌륭한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지방총독은 그를 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에게 자신의 젊음을 생각하여 스스로를 공황히 여겨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들을 자극하고 화를 돋우어 마침내 이 불의하고 무법한 세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본 군중들은 이 경건

한 순교자의 용기,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강건한 믿음에 놀라 ‘악인들을 제거하라, 폴리갑을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순교역사

기독교 순교의 역사는 사도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의 순교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교에 대한 피어린 역사를 후세에 전해준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순교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순교가 훨씬 많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순교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의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순교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그들의 순교에 대하여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의 순교 역사 중에 몇 분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만을 소개한다.

오리겐과 레오니다스

오리겐의 아버지인 레오니다스는 알렉산드리아 대학에서 헬라문학을 가르치다가 셉티무스 세베루스 치하의 박해 때(A.D. 202년)에 순교했다. 레오니다스가 체포될 때에 18세였던 오리겐은 아버지

를 따라가 함께 순교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옷을 감추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자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냈다. 오리겐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가족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후 오리겐 역시 순교했는데 오리겐은 처형장에서 순교한 것은 아니었으나 데키우스 차하의 박해 때(A.D. 250년) 투옥되어 오랫동안 고초를 당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2년 후 두로에서 사망했다. 오리겐의 묘소에는 십자군 원정 때까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페페투아(Perpetua)와 그의 동료들

이들은 몬타누스파로서 ‘A.D. 203년’경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다. 페페투아는 당시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다. 이때에 10대의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5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페페투아의 시종들로서 펠리시타스, 레보카투스, 세테니누스, 세쿤두스 등이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이 체포당하자 그녀의 부친은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때에 그녀는 대답하기를 ‘만물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나는 이미 기독교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때에 페페투아는 셋막이 어린아이의 어머니였고 또한 임신 중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셋막이 어린아이의 엄마와 임신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순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당시 로마제국의 정책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탈퇴하게 하는 것이었다. 관리들은 그들을 회유하여 기독교로부터 탈퇴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고문하고 달랬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문과정이 길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체포된 후 8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곧 다른 기독교 여성들에게 입양되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자 간수들이 ‘그 정도로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원형경기장에서 짐승들의 공격을 당해 낼 수 있겠느냐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살아서 나가라고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야수들에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 틀림 없다.’(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남편과 아내가 십일조나 십일조 액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십일조” 자체나 지역 교회와 다른 단체에 얼마를 헌금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소득의 10%를 십일조로 바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경제에서는 이스라엘에 십일조를 제정하셨습니다. 십일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실행되었으며(창세기 14:20), 또한 레위기 27:30은 백성들이 토지, 씨앗, 나무의 열매 등의 십일조를 바쳐야 함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4:22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 증가분의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십일조가 성막, 이후에는 성전과 제사장들의 존속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헌금입니다. 우리는 구약 경제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은 우리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과 선교 사업을 지원하는 한 방법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

둔다 하는 말이라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6-7) 강박적으로 헌금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헌금하는 것은 영적 유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마가복음 10:8). 가장 좋은 것은 남편과 아내가 헌금에 대해 논의하고 성경적 원칙에 따라 적절한 헌금액과 적절한 대상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빼앗고 남편 자리를 침범하거나 남편의 헌금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는 수위권을(에베소서 5:22-33) 자기가 가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어긋난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2).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내를 이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2-33). 남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의견을 고려하되,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정의 머린 남편은 헌금 결정에 대해 최

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을 직접 고칠 필요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이런 영원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

캣체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언약궤를 잃어버린 유대인의 슬픔과 기원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 (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정'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g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서화 수집과 감상을 위해 유대인 박물관이나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synagogue)에 가면 어디서나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유대인의 슬픔과 기원"이라고나 할까? 비록 여호와와 선택을 받은 선민(選民)이라는 자부심과 노벨상을 휩쓰는 영광을 구가하는 열두 지파라는 환희도 있지만, 그러나 2천년 동안 세계 도처를 유랑하며 천대와 핍박을 받고 살면서, 그들이 쫓겨난 고향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절하며 기원하는 슬픔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왕이 예루살렘성전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살던 낙원이었다. 그러나 AD 70년에 로마제국의 티투스(Titus)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무자비하게 함락되고 그 유명한 '통곡의 벽' 만 초라하게 역사에 남긴 채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그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 디아스포라(diaspora)로 살았다.

유대민족의 슬픔의 근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김으로부터 출발한다. 예루살렘성전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전 내 깊숙한 위치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the Ark of Covenant)가 있으며, 언약궤 위의 두 그룹(cherubim) 천사 사이의 시온좌(mercy seat)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들이 삼키는 유일한 신 여호와를 만나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민족이 유대인 말고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다. 여호와와 왜 언약궤 위에서 나타나실까?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민족 약 200만 명이 모세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 하여 시나이산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여호와와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고, 신이 지정한 언약궤 위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제사장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하기진 이스라엘민족을 먹여 살린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들어 있었다.

이 소중한 언약궤는 가나안땅 실로에까지 모셔왔으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자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죽어 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두 번 외쳤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자랑인 남편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제사장인 사아비지가 급사하였기 때문이다.

유대민족이 가장 자랑하는 왕은 다윗이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후 첫 사업이 여부스 족이 살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시온산에 다윗성을 쌓고 3만 명의 군대를 보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이다.

13세기에 제작된 모건바이블의 아름다운 삽화를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



언약궤(the Ark of Covenant) ©yahoo.com

며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앞에서 다윗왕이 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 2층 창문에서 다윗왕비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임신여겨 비웃고 있다.

그때부터 법궤(언약궤)는 예루살렘 장막에 있다가 솔로몬이 완성한 예루살렘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었다. 이후 BC605년경 갈기미상 전후에서 애굽과 앗수르에게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파괴 약탈하고 유다의 여호야김왕과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은 바벨론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에 솔로몬성전의 "기둥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산당에 두었다"는 성경 기록을 보면 십계명 돌바가 들어 있던 법궤도 전리품으로 옮겨져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후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과 신약시대의 헤롯성전의 지성소에서도 언약궤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



다윗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David bringing the Ark into Jerusalem(2 Samuel 6) | 13세기(13th century) | 작가미상(Anonymous) | 모건바이블(The Morgan Bible)

할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것"(렘 3:16-17)이라고 예언한 그대로였다.

예루살렘성소의 언약궤가 사라지자 바벨론에서 귀환한자들을 비롯한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인 시나고그(synagogue)에 언약궤의 그림자 같은 토라성궤(Torah Ark)를 마련하였다.

시나고그에서는 안식일이나 의식 때에 히브리성서의 첫 5권인 율법서(Torah)를 낭독한다. 양가족에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의 귀중한 토라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캔베닛 형태의 보관함을 토라성궤(聖櫃)라 한다.

이 토라성궤를 두는 장소는 전통적으로 시나고그 내부의 벽면 중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착되어 있다. 그들의 정신적 고향인 예루살렘성소와 잃어버린 법궤를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의 외침대로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아다스 예수론 시나고그의 토라성궤(Torah Ark from Adath Yeshurun Synagogue) | 아브라함 술킨(Abraham Shulkin)작 | 1899년 | 뉴욕유대인박물관(The Jewish Museum, New York)

은 선민으로서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다. 따라서 언약궤 대신에 토라성궤를 만드는 일은 은혜시대에는 다 무의미한 일이다.

언약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제사장들은 땅의 제물로 땅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연 대제사장 중의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은 찢어져 버렸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말할 것도 없고 지상 성막 전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오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은성경구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의 본질을 압축해 선포한다.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밝힌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죄인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다가온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전혀 다른 길, 곧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구속의 사건이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다.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며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흘러간다는 의미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다시 그 믿음을 나누고 전하는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 결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이 가능하다.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살아난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되었고, 오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설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와도 같다. 주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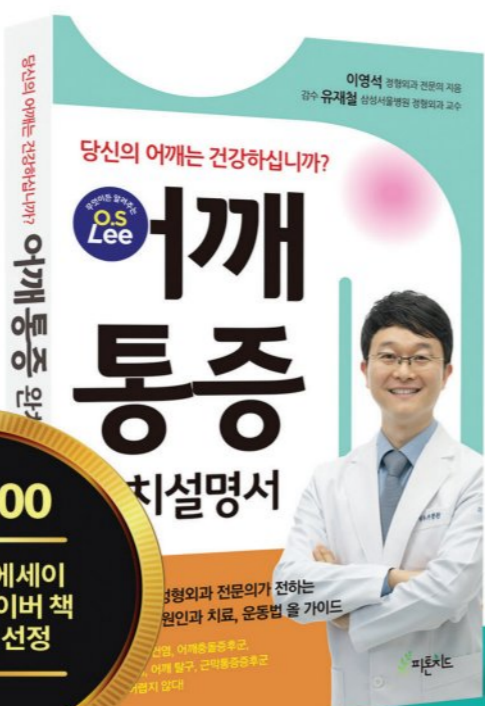
바울이 전한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된다. 세상의 눈에는 약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복음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

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와 공로에 의지하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유럽 기독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

제1회 미디어페스트 체코 프라하서 성료
17개국 미디어 전문가 72명 참석 일방적 메시지 지양하고
대중의 질문에 귀 기울이는 소통 방식 논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태너셔널(CDI)은 국제미디어협회(MAI) 유럽 지부가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체코 프라하 중심부의 옛 수도원 건물에서 제1회 범유럽 미디어페스트를 개최했다고 6월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유럽 내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시대에 맞는 정보 전달 및 소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유럽 기독교 미디어페스트에는 체코를 비롯해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17개국에서 72명의 미디어 전문가가 참석했다. 헤더 푸블스 MAI 회장을 포함한 미국 관계자 3명도 자리를 함께하며 유럽 전역의 기독교 출판 및 미디어 사역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열렸다.

행사의 공식 주제는 '예수님이 답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인가?'로 정해졌다. 주최 측은 기독교 미디어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실제로 던지는 질문과 필요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행사 전반에 걸쳐 강조했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경청과 시대적 질문 파악

기조연설에 나선 성경 번역가 알렉산드르 플렉은 성경이 정답뿐만 아니라 인류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가 복음서에서 100개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과적인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완벽한 정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영국의 독립 기독교 출판사 SPCK의 샘 리처드슨 최고경영자는 콘텐츠 과잉과 주력력 결핍 시대의 대중 소비 성향을 분석했다. 그는 현대인들이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부재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중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두는 동향을 언급하며 이들이 삶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 소음에 지쳐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리처드슨 최고경영자는 대중이 더 이상 거대 기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진정성 있는 개인과 브랜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08쪽 분량의 인공지능 관련 기독교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사례를 들며 독자의 지적 수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유럽 각국 기독교 미디어 사역 실무 사례 및 대응 방안 공유

이번 행사에서는 유럽 각국의 다양한 기독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실무 사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튀르키예의 과칸 탈라스는 기독교가 서구 문화로 인식되는 현지 상황을 설명하며 신학적 언어보다 기독교인의 실질적인 삶의 태도가 복음 전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체코의 파벨 에데는 소속감이 믿음보다 우선시되는 프라하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 제작 및 출판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카를로 카렌호는 출판계에 불어닥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설명하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창의적인 도구로 수용할 것을 제안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MAI 유럽(MAI Europe)의 첫 범 유럽 미디어페스트(MediaFest)에 유럽 17개국에서 온 72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MAI Europe

했다. 클라우스 크로그는 난독증 환자 등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자넷 윌슨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다나벨라 베네벨라를 텍스트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편집자의 역할이 저자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안내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불가리아의 블라디 라이치노프는 사역과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나누며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네덜란드의 릭 주주는 매일 진행되는 논의 내용을 시적인 언어로 요약해 발표했다.

◆유럽 기독교 미디어 네트워크 확장 및 정례 행사 발전 도모

참가자들은 오전 시간 동안 전체 세션과 실무 워크숍을 밀도 있게 진행한 뒤 오후에는 프라하 시내에서 5개의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다. 이들은 프라하의 역사

와 숨겨진 교회 시설 등을 탐방하며 유럽 사회 내 신앙의 발자취와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MAI 유럽 지부 측은 이번 행사가 약 10년에 걸친 기획과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견고한 유럽 기독교 미디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제1회 미디어페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향후 행사에 대한 각국의 유지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MAI 유럽 지부는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튀르키예 등으로부터 행사 개최 초청을 받은 상태다. 주최 측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럽 내 여러 국가를 순회하며 미디어페스트를 대표적인 기독교 미디어 연대 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중남미 기독교 미디어 연합 'COICOM 2026' 과테말라 총회 공식 출범

22년 만에 과테말라 개최 확정,
세대교체 및 신기술 도입 등
현대 교회 과제 집중 논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태너셔널(CDI)은 중남미 기독교 미디어 및 신앙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아메리카 기독교 미디어 연합 코이콤(COICOM)이 '코이콤 플러스 과테말라 2026' 총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고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코이콤은 최근 과테말라시티 바르셀로 호텔에서 주요 목회자와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국제 총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출범식은 코이콤이 22년 만에 과테말라에서 다시 총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참석자들은 가짜 정보 확산과 세대 간 리더십 격차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라는 현대 교회의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놀드 엔스 코이콤 국제 총재는 2000년 과테말라에서 첫 총회를 열었고 2004년 마지막 행사를 개최한 이후 22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왔다며 지역 교회와 사역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올해 총회의 공식 주제는 '명확한 비전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대중의 우려를 짚어 보기 위한 취지다.'

이날 공개된 중남미 대중의 교회 인식 통계에 따르면 비기독교인의 74퍼센트가 교회가 사회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4퍼센트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평가해 기독교계와 일반 사회 간의 소통 단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최 측은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총회에서 사회적 변혁과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남미 기독교 미디어 리더십 세대교체 및 신기술 포용 과제

코이콤 이사회는 11월 총회를 이틀 4대 핵심 의제로 하나님과의 만남 세대교체 신기술의 활용 인류애와 연대를 채택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중남미 기독교계의 리더십 고령화 현상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엔스 총재는 중남미 인구의 65퍼센트가 35세 미만인 반면 복음주의 지도자의 70퍼센트는 45세 이상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너 바르가스 이사회 의장 역시 세대교체를 단순한 양보가 아닌 제도적

지난 5월 26일, 과테말라시티의 바르셀로 호텔에서 열린 '코이콤 플러스 과테말라 2026(COICOM Plus Guatemala 2026)' 공식 출범 행사에서, 코이콤(COICOM) 국제 총재인 아놀드 엔스 박사는 코이콤과 과테말라가 오랫동안 이어온 협력 관계와 역사적 연결성에 대해 회고했다. ©Diario Cristiano Internacional

임으로 규정했다. 카를로스 바르가스 호프 오브 라이프 인터네셔널 이사는 젊은 지도자들이 대규모 사회 및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회가 네 벽의 울타리를 넘어 소외된 취약 계층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인공지능 두려움 극복 및 사역의 진정성 회복 방안 모색

디지털 기술 활용과 인공지능 포용도 코이콤 총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주최 측은 다수의 중남미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했으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엔스 총재는 교회가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목격에 맞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선제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 후반부에는 알렉스 메하야 코이콤 미국 지부 부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메하야 부의장은 자신의 병원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내 분열의 주원인인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독교 미디어 사역자-목회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플랫폼을 사역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출범식은 과테말라 기독교 방송계 원로인 루이스 페르난도 솔라레스 목사의 신학적 제언으로 마무리됐다. 솔라레스 목사는 사역과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진실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역만이 영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이콤 측은 오는 11월 열리는 과테말라 총회에 중남미 전역에서 60명 이상의 전문가와 연사가 참여해 기독교 미디어 혁신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AI 시대, 플랫폼 신사업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한동대 강연 현장의 모습. ©한동대

배달의민족·POIZON 현직자가 한동대 특강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는 6월 1일 경북RISE사업단 지원으로 재학생 대상 특강 '플랫폼 신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현업의 3단계 전략'을 개최했다. 이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동욱 매니

저와 글로벌 패션 플랫폼 POIZON의 송승연 매니저가 연사로 참여했다.

연사들은 배달의민족, 야놀자, 무신사 등 주요 플랫폼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와 신사업 기획·검증·확장 과정, AI 시대 플랫폼 경쟁력과 글로벌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특강은 학생 주도형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AI 활용 마케팅, 글로벌 진출 전략, 플랫폼 비즈니스 전망 등에 대해 연사들과 토론했다.

AI융합학부 이한진 교수의 글로벌기업가정신(GE) 수업과 연계된 행사에서는 AI 기반 사업개발과 마케팅 활용 방안, 관련 직무 역량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동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AI와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지동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꺼지지 않는 기도의 횃불”... 횃불트리니티, 24시간 연합예배 드려

아신대·중앙대·서울대·서울장신대·한국뉴욕주립대 참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오덕교, 이하 TTGU)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천구 캠퍼스에서 '24시간 캠퍼스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5월 29일 오전 11시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TTGU 재플팀의 인도로 시작해 총 16개 팀이 순차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 연합예배에는 횃불트리니티 영어반 원우회, TTI 이스라엘 동아리, Pray for Japan, 마라나타, One Voice 등 교내 공동체와 개인들이 참여해 각기 다른 예배의 색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특히 ACTS 아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중앙대학교 기독교생연합회(CUSCM), 서울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PTW, 한국뉴욕주립대학교 Kairos SUNY Korea Worship Team 등이 예배팀으로 함께하며 캠퍼스 간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주최 측은 각 대학 예배팀뿐 아니라 수십 명의 학생 예배자들이 현장을 찾아 영적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중앙대와 서울대 등 캠퍼스에서 온 학생들이 잇따른 청년 자살 소식과 우울 문제를 언급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동기와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켰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했다. 주최 측은 이번 예배가 공동체적 연합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드리는 개인적 예배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교를 전한 김의창 교수(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채플린)는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연합, 우리의 사역 현장, 직장, 학업, 가정까지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4시간 캠퍼스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TTGU

르신 예배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승복하고 예배하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단 한 번도 포르투갈어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

로 예배가 드러지고 있다. 외부에서, 다른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며 “4번째 진행되는 24시간 캠퍼스 연합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진도 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



연합예배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TTGU

하신 그분을 예배하시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주최 측은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학생 휴게실과 남학생 쉼터를 운영하고, 로비에 간식을 비치하는 등 참가자들의 편의를 지원했다.

4년 전 시작된 TTGU 24시간 캠퍼스 연합예배는 해마다 공동체의 참여 속에

이어지고 있다. 연합예배 총괄팀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의 횃불 아래 타 대학 예배팀들도 함께 찾아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예배의 횃불이 각 캠퍼스마다 겹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국CCC, 오는 6월 23~27일 강원 평창서 2025 여름수련회 개최

가등락 1만 명 조기 돌파...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빠른 속도

한국CCC(대학생선교회)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025 CCC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First, No Matter What'(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수련회 개최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28

일 기준, 인터넷 가등락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열흘 이상 빠른 추세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련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저녁집회, 선택특강, 전도 훈련, 새친구반, 선교비전-통일박람회, 교수수련회, 순례전도 등이 마련된다.

대회장인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

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세대를 지나고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드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길 도전한다”고 말했다.

수련회를 앞두고 전국 CCC 대학생들은 각 지구·캠퍼스 단위로 온-오프라인 사전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SNS 챌린

지, 수련회 티셔츠 이벤트, 가등락 이벤트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기도 운동도 병행되고 있다. 전국 각 지구에서는 지구 채플 시간을 활용한 ‘여호수아기도회’가 열렸으며, 각 지구와 부서는 40일 연세 기도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련회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와 홍보물을 제공하고, 매일 기도 제목을 공유해 수련회 각 영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독려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조이선교회, ‘영혼의 닻’ 주제로 여름수양회 개최

6월 29일~7월 3일 가평 오륜비전빌리지서 4박 5일 진행

조이선교회(대표 손창남 선교사)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경기도 가평 오륜비전빌리지에서 ‘영혼의 닻’을 주제로 2025 여름수양회를 개최한다. 주강사로는 박광리 목사(우리는 교회가 나선다.

조이선교회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깊이 직면하고 복음 위에 삶의 닻을 내림으로써, 세상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불안과 근심을 만들어내고 다음 목표와 경쟁, 노력을 요구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삶이 떠나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중심, 곧 영혼의 닻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음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에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며 “이번 수양회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만나주시길 믿고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이여들에게 여름수양회는 4박 5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형제의 연합과 위로부터 오는 기쁨부흥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많은 조이여들이 참석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수양회 등록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1차 등록은 18만 원, 2차 등록은 19만 원이며 당일 등록은 21만 원이다.

주최 측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회비를 20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준비위원장) violejoy@hanmail.net / 02-929-3652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협성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027년도 참여 기업 모집

마케팅·SW·건축 등 7개 분야 운영... 기업당 연간 최대 수천만원 지원

협성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센터장 주경일)가 2027년도 4년제대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4년제대 일학습병행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독일의 도제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현재 협성대 센터에는 2026년 기준 1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가 운영하는 훈련 과정은 마케팅전략기획, 응용SW엔지니어링(SW개발·SW테스트), 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구조설계), 시각디자인, 화학물질분석, 총

무인사, 호텔관리 등 7개 분야다. 모두 Level 5 기준으로 운영된다.

협성대는 2016년 11월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운영대학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7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훈련 과정 개발·학습 도구 제작 지원, 전담 인력 양성 교육 지원 등 훈련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 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연간 400만~1600만원), HRD 담당자 수당(연간 300만원 한도), 학습 근로자 훈련 지원금(월 25만원)도 지급된다.

이 밖에도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BestHRD 심사평가 우대,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병역 특례업체 선정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관련 문의는 협성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 1

헌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는데 교회는 돈을 내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말에는 교회에 내는 헌금이 회비나 세금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금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헌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원합니다. 또한 헌금을 어떤 원리를 통해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을 원합니다.



조정익 목사

첫째,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둘째, 헌금은 내가 생각하는 용도에 따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용도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원리대로 드러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이웃들에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내야 하는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부들 돌볼 것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은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딤후 5:8)”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눅 16:9)”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였고 비유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에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눅 13:7)”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국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역이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자 교회 안에는 많은 필요가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4-45)”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집사를 세워서 그것들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던 것을 보

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회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가정의 필요에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웃이나 국가, 교회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또는 교회에 재물을 모두 갖다 바쳐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균형있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유희교회 조정익 목사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2 (역대하 20장 13~30절)



2. 강력한 영적 무기인 찬양

찬양은 기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사탄의 역사를 막는 영적 보호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찬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찬양이 불리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묵인 자가 놓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찬양으로 총만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목장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 곡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불같이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동시에, 마귀를 공격하여 무찌르는 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을 보면, 경건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기가 아닌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연합군으로 공격해오는데, 마온 사람들(또는 세일 사람들, 즉 에돔)과 같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③ 이에 유다 사람들은 모든 성읍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13절)

여기에 보면 남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 심지어 어린아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사밧 왕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회중 가운데 있던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15-17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이 맡아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고(15),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17)라고 하십니다. 이에 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리며 큰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18-19절)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백성들은 모두 일찍 일어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20절)

이 여호사밧의 선포를 보십시오. ‘주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놀랍게도 최선봉에 전투부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가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21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맨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여호사밧 개인이 왕의 체면 때문에 혼자 각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의논한 다음 그렇게 했습니다. 뭘 의논했습니까? 어떻게 할까를 의논했지만, 다 함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

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이미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을 바라”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붙지 의논한 겁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우기로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행진하게 합니다. 군대도 싸우러 나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 보러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진형입니다. 그런데 찬양만 하고 나가면 다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직접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사기셔서 적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22-23절)

분명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들이 먼저 세일 산 즉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더니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를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은 결국 자멸하

고 말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은 싸울 필요도 없었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순종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다시 보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찬양은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부터 마귀는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되면 낙심하며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엄청난 무기가 갖고 있는가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브리가 골짜기라 일컫더라”(25-26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3일 동안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브리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를 가진 다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개선 행진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의 전에 나아가니라”(27-28절)

이 놀라운 기적의 승리에 대한 소문은 사방 모든 나라들로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주변 나라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29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히 유다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은 통치기간 동안 국방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30절) <계속>

콜럼버스한인장로교회 이준원 목사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자이언트스텝 기획·제작 'The Greatest Love' 전시, 8월 말까지 연장

롯데몰 김포공항점서 3만 명 이상 관람...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인공지능(AI)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기업 자이언트스텝이 기획·제작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The Greatest Love'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지난해 10월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개막한 이 전시는 당초 6개월 일정으로 기획됐으나, 관람객 호응에 힘입어 운영 기간을 늘렸다. 전시는 4월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 4.94점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람객도 3만 명을 넘어섰다.

'The Greatest Love'는 성경 메시지를 현대적 영상미와 인터랙티브 기술로 구현한 전시다. AI와 리얼타임 콘텐츠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이 공간 속에서 성경적 메시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했으며, 비가독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 성경 콘텐츠와 미디어아트의 결합 전시는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기간 교회와 교육 기관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며 신앙 교육과 체험의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공간. ©자이언트스텝



참여자들도 스스로 주인공 월터가 되어 찰스 디킨스와 앉아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자이언트스텝

장으로 활용됐다. 또한 애티미 등 기업 후원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 교계 협업으로 콘텐츠 확장 자이언트스텝은 지난 5월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페스티벌 'READY CALL'의 체험 전시를 'The Greatest Love' 콘셉트로 기획·제작했다. 이를 통해 전시 콘텐츠가 교회 행사와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회사 측은 지방 전시와 상설 전시에 대한 협업 요청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 콘

텐츠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복지기관 관람 지원 추진 자이언트스텝은 연장 전시 기간 동안 기독교 단체 및 기업들과 협력해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관람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The Greatest Love'는 8월 31일까지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이언트스텝은 이번 전시가 성경 기반 미디어아트와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예람위십, 활동 재개 동시에 유튜브 '인기 MV TOP 100' 진입

찬양사역팀 '예람위십'이 긴 공백기를 깨고 복귀했다. 예람위십이 2026년 새해 첫 주자로 선보인 찬양 곡 '하나님의 열심'은 공개 직후, 올해 발표된 기독교 찬양 영상 중 최초로 대한민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TOP 100'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예람위십이 약 6개월간의 긴 침묵을 깨고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예람위십은 최근 공식 영상을 통해 그동안 미디어 사역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유를 대중에게 털어놓았다.

선교회 측에 따르면, 활동 중단은 한 멤버의 갑작스러운 수술과 이에 따른 회복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반년 동안 팀의 재정비와 회복에 전념해 온 예람위십은 이번 '하나님의 열심' 찬양 영상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문화 선교 활동 재개에 나섰다.

기다려온 팬들과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올해 처음 선보인 타이틀곡이 발매와 동시에 유튜브인기 뮤직비디오 TOP 100에 곧바로 진입하면서 한국 기독교 음악(CCM)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1위 아이오아이(LOI), 2위 아이릴(ILLIT), 3위 악뮤(AKMU) 등 내로라하는 대형 대중가요 아티스트들이 상위권을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K팝 스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 찬양 영상이 차트 상위권에 당당히 진입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교계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예람위십 대표를 맡고 있는 전 혁 목사(사송영락교회 담임)는 "이번에 거둔 성과는 결코 예람위십팀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차트 진입이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세상 가운데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라며 "새롭게 활동을 재개한 예람위십이 지치지 않고 문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와 교회의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TV사백예배 만나교회 40 하나님의 손길(132회) 장애물이 다름들이 될 수 있다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6월 04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6월 04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신정현강단(김관선)(1010회) 30 TV강단 김시드림(서영아)	10 강연쇼 통(64회)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법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이지훈(대구별아), 온 세대를 원하시고 인도 하시는 하나님(잠언 16:9) 30 생명의 말씀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행복한 삶터 여의도순복음은혜 (이태근) 50 GOODTV 오늘의 예배	1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119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76회)	00 생명의 양식 사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7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인물사
07:00	00 CTS뉴스 6/4(목) 20 생명의 말씀 50 생명의 말씀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사랑의 메시지 수원순복음(이요한) 50 비전설교 대한 (윤영민)	30 휴먼네트워크(74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661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86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64회) 40 서정희의 매일성경(64회) 창세기 8-11장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제인지 더 월드 케냐 맨(서부재교회) 김한원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6월 04일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223회)	00 하나님의 음성(255회) 20 CBS 성서학당 (이사)(4500회) 성서 속으로 Go Go! 4강	00 복음강단 애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영은 목사
09:00	00 원더풀우먼(31회) (고통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게스트 영미솔 대표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서경오 목사, 요나 11강]	30 행복한 삶터 이말포이 (임동현)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62회) 40 언약(15회) 50 구역의 세계로 (오삼소)(24회)	10 새물개하소서(11089회) 스티븐 오 감독 1부	00 글로벌 신앙토론회 잇츠오픈(55회) 혼자면 외롭고, 함께하면 기쁘고 40 믿음의 라벤서(8회) 경기도 수원시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북대구림교회 양규규 목사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REHAB(31회)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39회) 40 목사님 공금해오(159회)	20 성자가 좋다(532회) 르네상스 5대 도시 신앙 기행 2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 신약(30회)
11:00	00 7000마리물-예수사랑어기(569회)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 간암 형정우 목사, 시각장애 이지원 사모 50 신앙예배이 김광수 목사(충주효성교회)-두려움을 넘어 행복한 인생으로	00 사랑의 메시지 전주완산 (유병근) 30 사랑의 메시지 남서울중앙(피종진)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272회) 50 예수동행일기(14회)	00 울포원(742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97회) 한창수 목사 첫 번째 보충 3강 사랑 담은 레위기 : 총정리 3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87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형걸 목사
12:00	00 CTS뉴스 6/4(목) 30 생명의 말씀 강산중앙-김종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고린도후서 5:1)	00 호국보훈의 달 특집 GOODTV 시네마 물방울 30 행복한 삶터 은유한 (박경숙)	10 언약(15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535회)	00 TV강단 오병이(여명규) 30 오직예수 (이영훈)(943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나의 반석인 하나님/살아계신 주 40 서정희의 매일성경(64회) 창세기 8-11장	00 사랑의 메시지 안영생명나무 (손명숙) 30 사랑의 메시지 창신성결 (석진탁)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0회) 20 CGNTV 맞춤형 강 (나침판) 시즌2(150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84회)	30 김재원의 꿈예배(17회) 하나님의 막내 아들로! 여진구 대표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내가 매일 기쁘게(3446회)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예람위십 2부	00 GOODTV 특별강중 2025 감사투박 12세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6월 04일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344회)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 30 새물개하소서(11448회) 류성열 목사	20 플라보르(21회) 사내산 언약 4
15:00	40 7000마리물-예수사랑어기(569회)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 간암 형정우 목사, 시각장애 이지원 사모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움	0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16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6월 04일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498회) 마태복음 33강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버람 NEW WAVE 이규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행복한 삶터 소생 (강복걸) 30 행복한 삶터 대구동신 (문대원)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105회) 40 언약(15회) 50 [말씀] 김형익 목사(별살롬교회)(426회)	10 맨투맨 처치(11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19회) 50 하나님의 음성(255회)	00 이석 목사의 일야버린 복음을 찾아서(26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 신약
17:00	00 생명의 말씀 새매번-소강석, (아도나IQ 시리즈 7) 네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32:23-29) 50 빛으로 소금으로 이창근 목사 -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00 더 메시지 소진우 1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양훈길 목사(빛그림성교회)(622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85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14회) 50 영혼의 양식 성경동화(김주철)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택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 산 자의 하나님(마태복음 22:31-32) 30 TV찬양예배 만나교회	10 비전설교 대전태평 (한상현) 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10 THE NEW 하늘빛향기(11회)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7회)	00 TV강단 생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유미마을 예배 (김영준)(288회)	2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30 말씀의 창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북대구림교회 양규규 목사 3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실기(64회) 부부특집2-따로 또 같이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7회)	20 CBS 교회소식(1053회) 30 TV강단 예(김진주)	00 비전메시지 광주새성인교회 김시은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429회) 김하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강산중앙-장찬영,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창세기 50:15-26)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혼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6월 04일 20 레디온(187회)	00 생명의 시대(44회) 50 말씀의 생 대한성교회	10 비전메시지 기쁨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매신저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관계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 (뉴츨저지, 남빈) 30 서정희의 매일성경(64회) 창세기 8-11장 50 CTS뉴스 6/4(목)	10 명사들의 명망 40 GOODTV NEWS	00 천원목자교회 주일예배 2026년 05월 30일	00 CBS 성서학당 (이사)(4500회) 성서 속으로 Go Go! 4강 50 성경동화 이것이 공금해다(92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60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서경오 목사, 요나 11강	00 2025 다나벨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6월 04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 패밀리(66회)	00 CBS NEWS 10 20 CBS 스페셜 2026 생태계의 기적세미나(60회)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8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94회) 한창수 목사 첫 번째 16강 사랑 담은 레위기 : 화년과 언약의 완성 50 리바이즈 워십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12회) 김두식 목사,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2026 천사후원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250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6월 04일 50 언약(15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종인들(18회) 30 잘 믿고 잘 사는 법(339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86회)	00 플라보르(21회) 사내산 언약 4 40 성경 속 인물사(9회) 비비비비 받은 은혜
00:00	00 Calling GOD(2499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제자의 기도(창년의 기도)	10 2026 천사후원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6월 04일 20 바울로부터(2회)	10 새물개하소서(11089회) 스티븐 오 감독 1부	00 강연쇼 통(64회)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선스 구역
01:00	00 더 초존 시즌5(대형) 최후의 만찬 2부 15세	10 2026 천사후원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00 [말씀] 김문성 목사(영락교회)(261회) 4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29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85회) 40 말씀의 능력(전택식)(585회)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트(21회)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세계 30 성자가 좋다(532회) 르네상스 5대 도시 신앙 기행 2
02:00	10 7000마리물-예수사랑어기(569회)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 간암 형정우 목사, 시각장애 이지원 사모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25회)	30 TV강단 강산중앙(최병락)	00 우리 함께 찬양(13회) 난국중앙교회 1부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 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04회)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서경오 목사, 요나 11강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북대구림교회 양규규 목사	10 GOODTV 특별강중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224회)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63회)	00 울포원(741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준수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한국중앙 (임석순)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명령교회)(249회)	00 CBS 성서학당 (최주훈)(4499회) 명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5강 50 CBS 교회소식(105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4회) 김진도 목사 30 성자가 좋다(532회) 르네상스 5대 도시 신앙 기행 2